



제21대 대통령선거 홍보 현수막 게시

29일 오후 서울 중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제21대 대통령선거 대형 홍보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뉴시스

LS전선, 트럼프 2기 첫 美 투자 1조 규모 해저케이블 공장 착공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전환 교두보 VCV타워 등 최고수준 인프라 구축 330개 이상 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

LS전선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 기업 중 최초로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LS전선은 자회사 LS그린링크가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시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제조 공장을 착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총 6억 8100만 달러(한화 약 1조원) 규모다.

LS전선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의 공급망 자립 전략에 선제 대응하고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전환을 이끄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내 해저케이블 생산 인프라가 극히 제한적인 만큼 현지 조달 확대와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공장은 엘리자베스강 유역 39만 6700㎡(약 12만평) 부지에 들어서며 연

면적은 약 7만㎡(약 2만평) 규모다. 오는 2027년 3분기 완공, 2028년 1분기 양산 시작을 목표로 한다. 향후 글로벌 수요에 따라 설비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생산 설비에는 201m 높이의 VCV 타워와 전용 항만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HVDC(고압직류) 해저케이블의 생산부터 운송, 공급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특히 VCV 타워는 버지니아주 내 최고층 구조물이자, 필라델피아에서 살럿 사이 동부 해안권에서 가장 높은 산업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공장 건설로 지역사회에는 33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규 LS전선 대표이사는 “LS그린링크 공장 건설은 LS전선이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급증하는 글로벌 해저케이블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조선 빅3, 세자릿수 ‘깜짝 성장’ LNG선·컨선 앞세워 쾌속 질주

1분기 합산 영업이익 1.2조 돌파 2022년 수주 인도 효과 본격화 高환율에 한미 협력 등 ‘접호제’ K-조선, ‘2차 초호황기’ 지속

국내 조선사들이 1분기 여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한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비중을 높이고 있어 2차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체 ‘빅3’(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가 1분기 세 자릿수 실적 성장을 기록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조77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36.3% 증가한 8592억원, 순이익은 6166억원으로 216.4% 증가했다.

한화오션은 매출 3조143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86억원으로 388.8% 증가했다. 삼성중공업은 매출 2조4943억원, 영업이익은 58% 증가한 1231억원을 기록했다. 빅3의 1분기 합산 매출은 12조4091억원, 영업이익은 1조2409억

원으로 2008년 전후로 누렸던 슈퍼사이클을 다시 누리고 있는 상황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인도되고 있는 선박들은 지난 2022년 수주했던 선박들로 과거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또한 달러로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조선업 특성상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선박인도 시점에서의 환율 상승은 매출 증가로 직결된다.

국내 조선사들은 증명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 낭보를 연달아 전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전날 오세아니아 선사와 84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28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18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에는 2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하고, 24일에는 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하며 최근 총 22척의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5000억원 규모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18척을 수주해 26억 달러(약 3조 7000억원)의 누적 수주액을 기록했고, 한화오션은 올해 14척을 수주해 약 30억 달러(약 4조3000억원)의 누적 수주액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 조선업 협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겹치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를 원하고 있어 군함·LNG선 등 고부가선종을 중심으로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4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고위급 2+2 통상 협의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함께 주요 의제로 거론되기도 하면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주 방한을 앞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같은 조선업에 뛰어난 동맹국과 협력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며 “우리는 즉시 행동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 분기점이다”라고 전했다.

오지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LNG선을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70여척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미국 LNG선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 국내 조선사들의 매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기밀 유출 막자” IT·재계, 유심교체 권고

‘SKT 유심 해킹’ 후폭풍 기업들 ‘보안 강화’ 긴급 대응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인해 최대 9.7GB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IT 업계와 재계는 사내 보안 강화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유심(USIM) 교체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우려보다는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8면〉

29일 〈메트로경제신문〉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18일 오후 SK텔레콤 보안관제센터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을 감지했다. 이후 9.7GB 분량의 정보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전화번호, 유심 인증키값,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유심 관련 핵심 정보



SK텔레콤이 유심 고객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T월드 매장에 ‘유심 재고 없음’ ‘익일 50개 입고 선착순’이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문서로 환산하면 300쪽 분량의 책 9000권, 약 27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이 큰 만큼 SK텔레콤은 하루빨리 더 많은 양의 유심을 확보해 유심카드 택배운송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주요 기업들도 잇따라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카카오, NHN, 넷마블 등 IT 기업들은 사내 공지를 통해 SK텔레콤 이용 임직원에게 유심 교체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고했다. 삼성전자 등 재계 주요 그룹 역시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다.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임직원 개인정보 탈취가 기업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메트로 한줄뉴스



▲“제정신인가요” 이낙연 ‘반명’ 빅텐트에 지역 정치권 맹비난
▲정청래 “이낙연, 한덕수와 단일화하려는 건 철새 짓” /사진 뉴시스

▲최재형 “한동훈, 범보수 연합 추진… 이재명 박스권 감해”
▲안철수 “누가 최종 후보 되든 이재명 막는 데 힘 바칠 것”

▲외교부 “북 파병 인정 무관, 북한군 전쟁포로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
▲韓총리 출마설에 또 ‘대대행’ 체제?… 관세협상·선거관리 어찌나

트럼프 주니어, 총수 릴레이 면담… ‘對美 네트워크’ 강화

정용진 회장 초청… 1박2일 방한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등 면담
한미 경제동맹 중요성 등 대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29~30일 일정으로 방한하면서 국내 재계 총수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30일 하루 동안 국내 재계 총수와 ‘릴레이 면담’을 예고한 상태여서 재계는 이를 통해 대미 네트워크 활성화를 찾기위함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 1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처음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은 국내 재계 인사 중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하루 서울 모처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와 릴레이 면담을 갖는다. 1대1 ‘티 타임’ 형식으로 총수마다 1시간 안팎 만날 예정이다. 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가운데)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부부와 만나 사진을 찍은 모습.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SNS 갈무리

럼프 주니어가 주로 재계 총수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전과 스마트폰, 반도체 업계는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면제 대상이지만 향후 전자제품으로 일괄적인 품목별 관세를 붙일 것으로 예고하면서 긴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회

장, 구광모 LG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 상당수가 트럼프 주니어와 만남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일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90일간 유예하면서 주요 수출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과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주력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재계는 트럼프 주니어와 총수들의 회동에서 관세 완화와 같은 직선적 논의보다는 한미 경제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상호 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 보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풀어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트럼프 정부에 전달돼 관세나 보조금의 실마리를 푸는 시작점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퓨처엠 포항 음극재 공장.

/포스코퓨처엠

美, 비중국산 선호 기조에 ‘음극재 사업’ 성장 기대감

포스코퓨처엠

1분기 음극재 매출 전년비 30% 증가
호주 업체와 연간 6만톤 흑연 공급계약

포스코퓨처엠이 북미 시장을 위주로 양극재 수출을 확대해 왔지만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 조짐에 따라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공급망 다변화 수요가 커지는 음극재 시장에서는 구조적 성장 기회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의 2025년~2026년 양극재 판매 전망치가 각각 7%, 10% 하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1분기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판매량은 4664억원 규모로 전분기 대비 32.6% 증가했지만 GM 전기차 판매 둔화 가능성이 내년 이후 전망치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판매물량 상당부분이 미국 완성차 고객사의 판매 수요와 연관돼 있는 만큼 양극재는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 출하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반적 업황 리스크가 있지만 음극재 사업 부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부각되고 있다. 음극재는 1분기 매출 392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30.2%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정책 강화에 따른 비중국산 선호 기조가 부각되며 점진적인 수요 개선이 예

상된다는 분석이 따른다.

특히 관세 불확실성 확대로 중국 지역 의존도가 높은 흑연계 음극재에 대한 탈중국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음극재의 밸류체인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음극재 시장 내 공급망 다변화 수요가 포스코퓨처엠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또한 최근 CATL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충전 속도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음극재 관련 기술력 개발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위험 분산을 위해 단일 공급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다수의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포스코퓨처엠도 지난해 호주 광산업체 ‘시라 리소시스’와 아프리카 모잠비크 광산에서 채굴한 흑연을 올해부터 연간 최대 6만톤까지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흑연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미 양극재·음극재 등 핵심 소재 분야에서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만큼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 모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포스코퓨처엠은 제조 원가를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애경케미칼, ‘나트륨 배터리’ 승부수

‘하드카본’ 실적반등 핵심카드 주목
내년 공장 증설, 2027년 상용화 예상

애경케미칼이 배터리 소재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사업구조 전환에 나섰다. 나트륨이온배터리(SIB)용 하드카본 개발을 본격화하며 전통 석유화학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신사업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케미칼은 ‘하드카본’을 실적 반등의 핵심 카드로 주목하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 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예상하며 이에 맞춰 2026년까지 공장 증설과 비용 절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리튬 공급망 불안과 가격 급등으로 대체 수요가 급증하며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가 반영됐다.

배터리는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과정에서 충·방전되는데 리튬이온은 입자가 작다. 나트륨 이온은 입자가 크기에 격자 간격이 넓은 터널인 하드카본이 필수다.

더욱이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이 최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비슷한 성능의 새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공개해 관련 시장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나트륨 배터리는 기존 리튬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지만 무게에 비해 수명이 짧고 충전 시간이 긴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CATL이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앞으로 나트륨 배터리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KB금융그룹
신한카드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을 잘안다
보험을 잘한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이다

보험도 결국 금융이니까!
금융을 잘 아는 KB가 보험도 잘 합니다
알면 알수록 보험은 KB손해보험입니다

자차보험
건강보험
자녀보험·태아보험
여행자보험
암보험
펫보험

KB손해보험

트럼프 당선 후 한화오션 주가 3.2배… 차익실현 적기 판단

산은 한화오션 지분매각 배경

2000년 출자전환… 25년만에 매각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 등 기대
“시장 영향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

한국산업은행이 한화오션 보유 지분을 매각을 결정하고, 공적자금 회수에 나섰다. 산은이 지난 2000년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지분을 확보한지 25년 만이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기로 결정한 것.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불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형태로 한화오션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 위한 수요예측에 들어갔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한화오션 지분 19.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1%)에 이어 2대 주주다.

산업은행이 지분매각에 나선 이유는 조선업 호황에 따른 주가상승 영향이



한화오션 부유식 도크에서 건조되고 있는 선박 모습.

컸다. 한화오션 주가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일인 지난해 11월 6일 주당 2만788원에서 이달 28일 종가 기준 8만9300원으로 3.2배 올랐다.

건전성 개선도 필요하다.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9%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주식 등 위험자산

에 시가 대비 가중치(250%)를 부여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량이 많을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19.5%의 지분을 4~5%로 쪼개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통매각에 나설 경우 시장에 주가 하락 등의 충격을 줄 수 있고, 수요처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주식을 팔면 매수가 2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방지하

는 효과도 있다.

지분을 4% 매각할 경우 매각금액은 약 1조945억원으로 총 5번에 걸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지분을 5%로 매각하면 1회 매각금액은 약 1조3681억원으로 매각횟수를 4번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아직 매각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잔여지분 처리 방안은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오션의 최대주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이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한화그룹의 지분율은 46.28%다. 금융권 안팎에선 산은의 한화오션 지분 매각 수량을 1300만주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수량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1면 ‘기밀 유출 막자…’서 계속

“재부팅 문자·전화 등 도용 시도 주의해야”

보안전문가들은 과도한 공포보다는 실질적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이 다른 단말기에 장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서비스”라며 “해커가 유심을 복제하더라도 다른 기기에 꽂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는 2023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개발된 것으로, 사실상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며 “해킹 사고 이후 비정상 인증 차단(FDS)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고, 유심 무료 교체 조치도 함께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보안전문가는 “불필요한 인증이나 본인명의로 개통된 미확인 회선, 처음 보는 문자 또는 통화가 있을시 즉각 신고하고 재부팅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유심 탈취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전국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를 통해 유심 무료 교체를 이어갈 예정이며, 사고 이후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는 별도 현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SK텔레콤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에 대해서도 무료 유심 교체를 적용한다.

한편, 알려진바에 따르면 유심 무상 교체 첫날인 27일 23만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고 온라인을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한 사람은 263만명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2300만명 수준이다.

/김서현 기자 seoh@

KDI “환율 1500원까지 올라도 물가 영향 제한적”

단기 상방 압력… 장기적 축소 전망 “변동폭·지속성 감안해 정책 설계해야”

최근 환율 급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경우 물가상승률은 1분기(2.1%) 대비 최대 0.24%포인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9일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

고서를 통해 “강(強)달러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하지만, 지속성과 파급력은 국내 요인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불안 등이 복합 작용해 환율이 급등했다. 이에 수입물가가 상승하며 물가 압력 우려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은 수입품 가격을 일시적으

로 높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봤다.

국내 요인에 의한 환율 상승은 수입품 전반에 광범위하게 파급되며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환율이 달러화 요인으로 1%p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같은 분기에 0.04%p 오르지만, 1년 누적으로는 0.07%p 상승에 그쳤다. 국내 요인에 따른 환율 상승은 동 분기에 0.04%p, 1년 누적으로는 0.13%p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다.

KDI는 또 원·달러 환율이 현재(1439.00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환율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1분기 대비 최대 0.24%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1400원으로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은 최대 0.4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환율 변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원인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동폭과 지속성을 감안해 거시경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1차 변경) 보상계획 안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64호(2021.6.28.)로 승인 고시 및 제2025-10호(2025.3.20.)로 변경 승인 고시되어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쌍정리, 삼촌리, 사강리 일원	2020.12.~ 2025.12.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가.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추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쌍정리, 사강리 일원 7필지

* 금번 공고 및 보상지역은 실시계획 변경(1차)에 따른 변경 및 미보상 지역에 한함

나. 토지 및 물건조서 상세내용은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송산그린시티 홈페이지(http://songsan.kwater.or.kr)에 공지합니다.

* 공고된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5.04.30.(수) ~ 5.14.(수) 09:00 ~ 18:00

나.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 보상부(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비봉로 388)
- 화성시 도로과(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 화성시 송산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매봉산길 12)

다. 열람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및 관계인임을 확인받은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라. 이의신청 : 열람결과 대상토지, 물건,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 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 보상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대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에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실보상 협의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 기준 - 대상 자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2020.11.10.)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협의 양도한 자(신청자 토지 소유 지분 전부 협의 양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대토면적 :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에서 대토보상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급 가능하며, 1인당 1필지를 일반분양가격(상업용지는 감정가격×유사용지 평균낙찰률)으로 공급 * 「대토보상 세부기준」은 손실보상 협의시 별도 안내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 보상협의 → 보상금지급

라. 현재 토지분할 절차가 진행 중으로, 토지 분할 전 기존 지번으로 보상계획 공고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상시기

가. 2025년 8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6. 기타사항

가. 조서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5.05.14.)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는 1개 감정평가법인만 추천 동의를 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추천 동의시 무효처리함

다. 공부지목과 현실 이용상황이 다른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감정평가되며, 임야 등 토지상에 자연림이 있는 경우 그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됩니다.

라. 본 사업에 편입되어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 중,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농지를 점유하고 영농을 영위한 실제 경작자의 경우 영농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을 사업기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보상액,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 협의시 별도 통지 드릴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처

- 1) 전화 : 031-369-8320~3
- 2) FAX : 031-369-8309

2025. 04. 30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도시본부 시화도시사업단장

“수출 줄고, 나랏빛은 눈덩이”… 신용등급 하향 경고 커진다

IMF 1%, JP모건 0.5% 성장률 하향 GDP 성장률, 4분기째 0.1% 밀돌아 국가부채 6222조, GDP 대비 2.5배 관세 충격·정치 불안에 외자 이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 등이 영향을 받으면서 세입이 줄어들 수 있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상호 관세 시행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추가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국가신용등급에 대해 한국이 여전히 여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부채에 따라 그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겠다”고 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투자은행, 경제 분석기관들까지 “성장률을 낮추고,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제 발행 금리가 오르고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는다. 외국 자본 이탈로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여



1분기 한국경제가 3분기 만에 역성장 쇼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GDP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소수점 둘째 자리로는 -0.24%다. IT 경기 부진으로 -0.5% 성장률을 기록했던 2022년 4분기 이후 최악의 기록이다. 24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트레일러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가 심각하다.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하기까지 14년이나 걸렸을 만큼 복원도 쉽지 않다.

◆하락 압박 받는 신용등급… 구조적 취약성과 대외 리스크 ‘이중고’

한국경제 주변 곳곳이 잿빛 그림자다. 한국의 성장률은 사상 처음으로 4분기 연속으로 0.1% 밑으로 떨어진 ‘저성장 쇼크’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이후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0.1%→0.1%→-0.2%’로 떨어졌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것이다.

글로벌 기관들은 한국 경제성장의 미

래를 잿빛으로 본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했다. 지난 1월 전망치(2%)에서 한꺼번에 절반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 점이 반영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24일 올해 한국 경제가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내려 잡았다. 기존 전망치는 0.7%였는데 더 낮은 것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에는 외부의 역풍이 눈에 띄게 커질 것”이라며 “기저효과 때문에 민간 소비는 반등하겠지만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달러당 원화도 1400원대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로, 파운드, 위안 등 보다 푸대접이다. 수출, 내수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국내 외의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정치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달러 자금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경제위기 때엔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경기 회복의 발판이 됐다. 하지만 대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과 원자재·부품 해외 의존이 늘어난 지금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 수입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 ‘나쁜 원저’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

나랏빛도 눈덩이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더한 국가총부채 규모는 6222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2.5배나 되는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을 생각하면 나랏빛은 더 늘 가능성이 크다.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는 197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약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다면 추가로 240조원(국고채 발행)까지 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와 금융시장이 흔들리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부담은 신용강등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과 빚 상환능력을 따지기 때문이다.

또다시 국가 신용등급까지 강등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 시각이 굳어지고, 나라와 기업들의 차입비용이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보게 된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나타났던 환율 1500원 시대가 조만간 닥칠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등급 자체 보다 무서운 ‘하향 파급효과’

만약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면 파급 효과는 단기간 내 한국 경제에 영향을 가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정부와 공기업의 외화 조달이다. 등급이 떨어지면 국제 이자율이 상승하고, 공기업의 차입 비용 역시 급등하게 된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신용등급은 국가등급과 직접 연동돼 있어, 국가등급 하락 시 조달비용의 연쇄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도 흔들린다. 외국계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국내 시중금리에 전이되며, 실물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부 외국계 펀드와 투자기관은 특정 신용등급 이상 국가에만 투자하도록 규정돼 있어, 등급 하향시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또는 비중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

환율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신용등급 하향이 확정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자산 매도세가 촉발되고, 이는 환율 불안을 키우며 외환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김학균 신용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신용등급은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라며 “문제는 성장잠재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경제·통상 대응력 붕괴… 비상 상황 속 ‘컨트롤타워’ 실종

한국 성장률 전망 1.0%로 ‘반토막’ ‘조기 대선’에 손 못 대는 통상협상 컨트롤타워 잇단 교체, 공백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으로 내려 앉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만큼 경쟁국 대비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대미 통상협회가 진행 중이나,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6월 초까지 통상협상의제 선정조차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2일 발

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이는 IMF의 1월 전망(1.0%)과 비교해 절반으로 낮아진 수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최대 하락폭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한국의 낙폭이 더 두드러진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평가를 담지 않았으나 수출 의존도가 크고,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의 경제 구조를 반영해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대미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로관세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수출 부진은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와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베트남, 유럽, 일본 등도 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글로벌 공급망도 혼란 속으로 빠져든 모습이다. 이로 인해 배터리와 석유화학 제품 등 연관 산업도 직간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의 ‘2+2 대미 통상협’을 통해 오는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 협력 3개 분야 6개 작업반을 구성해 관세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5월 중순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그리어 USTR 대표와 장관급 협의를 통해 작업반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환율 부문은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 채널로 논의한다.

하지만, 조기 대선에 따라 대선 전까지 현 정부가 통상협상 의제 설정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1차관은 지난 28일 방미 결과 백리빙에서 “미국 측도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6월 3일 대선이 있고 이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라이 패키지에 잘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USTR과 깊이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기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경제·통상 컨트롤타워의 손바뀜으로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사퇴 후 대선에 출마하면, 한 달 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대대행 체제로 다시 바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민생은 절벽인데, 여의도엔 ‘경제’가 없다

자영업자 매출 급감, 폐업 속출 여야 공약, 지역적 이슈에 집중 경제 체질 개선 논의는 실종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35)는 최근 가게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3년 전 가게를 열었을 때보다, 현재 매출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코로나19때보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가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A씨가 폐업하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단골 가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하지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여의도는 이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각 정당에서 경선이 한창일 때도 주요 후보들은 각종 경제 공약을 내놓았지만 인공지능(AI) 투자나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지역적인 이슈만 다뤘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큰 의제는 내놓지 못하는 실정인 셈이다.

그나마 경선이 끝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를 선언하며 경제에서만큼은 실용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밝혀 민주당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잘사니즘(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내세운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거나, AI 기본사회 등을 언급했다. 다만 ‘성장·실용’ 의제가 아직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숙성되지는 않은 모양새다.

반면 경선을 한창 진행 중인 국민의

힘은 경제 공약보다는 ‘반명(반이재명) 박테트’ 전략만 눈에 띈다. 다만 ‘컷오프식’으로 경선이 진행 중이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공약만 연이어 던졌다. 한달 6만원에 전국 대중교통을 통합 이용하게 하거나, 스토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거품 없애기,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 노동 시간 유연화나 주 4.5일제 도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생활밀착형 공약 인만큼 경제 성장을 위한 ‘대형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현재 여의도에서 그나마 ‘경제’ 이야기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할 때만 나온다. 국회는 지난 23일부터 상

임위원회별로 12조 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대선이 진행 중인만큼, 논의 과정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정치권이 입을 모아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논의가 더디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기 어렵으니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을 지적하며 산불 피해 복구·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다소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제 꿈은, 부스바 시장
세계 1등입니다”

부스바 한 길만 40여년,
꿈을 접어야 했던 적도 있었죠
모든 희망이 꿈인 그때,
절 믿어준 건 국민은행뿐이었습니다
그 자원 덕분에 고려금속은 위기를 넘기고
국내 최고의 부스바 기업으로 성장했죠.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죠?
세계위라는 더 큰 꿈 역시, 반드시 아룰 거라 믿습니다.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KB금융그룹이 든든한 금융으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asic
KB금융그룹

| 고려금속공업 대표 이영모 | *고려금속공업은 전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구리 부품인 부스바 생산 1위 기업입니다

*b KB금융그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김문수·한동훈’ 마지막 경선 치른다

내달 3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
홍준표 은퇴…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안철수 “최종후보 도와 정권교체 막을 것”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9일 안철수·홍준표 후보를 제치고 3차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절반씩 반영한 득표율을 집계한 결과, 과반을 넘게 득표한 자가 없어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고 밝혔다.

2차 경선은 김문수·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안철수·홍준표 후보가 탄핵 반대파로 2대2 구도 치러졌다. 2차 경선 결과, 탄핵 찬성·반대파 후보가 1명씩 탈락 하면서 3차 경선에도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3차 경선 진출 소감에서 “한동훈 후보께서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미래가 창창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후보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하실 때 여러차례 뵈는데, (저와) 비슷한 면이 있다”며 “속의 말을 감추지 못한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도 애국하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같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오늘로서 훌륭하게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졸업하게 돼서 고맙다”며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최종 후가 누가 되든 물심양면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다”며 “국민의힘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평했다. 또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를 막는데 제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차 컷오프를 통과한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 뒤 다음달 1~2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 투표 50%’ 방식의 3차 경선을 거친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오늘 선대위 공식출범

‘경제·통합’ 중점 중도층 공략

“분열·대결보다는 힘 모아 통합”
윤여준 전 장관·강금실 변호사 합류
비명계·김상욱·권오을 등과 소통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경제·통합’에 중점을 두며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는 29일 별다른 일정이나 공약 발표 없이 선대위 인선 작업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가 선대위 인선의 원칙으로 “가급적이면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언급한만큼, 선대위 인선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경제에 강점이 있는 인사와 통합 의지를 내비칠 수 있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차례나 언급하며 진영과 계파를 가리지 않을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미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라며 “그 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해결해야 하는 국정 과제에 대해선 “뭐니 뭐니 해도 국가 운영을 책임진 분은 경제가 최우선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표가 경제 쪽에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외한은 아니니까 다행이라

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바 있는 강금실 변호사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었다.

이외에도 경선 상대였던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하고 비명계인 박용진·이광재·김두관 전 의원, 우상호 전 원내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통합 선대위를 위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선대위 합류 제안 사실을 밝히며 구체적 역할을 논의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평당원으로라도 어떤 역할이 있다면 주어진든 주어지지 않은 제 역할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선대위에 결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월 이 후보와의 비공개 독대 때 나눴던 대화에 대해 “(이 후보가)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의 진보를 맡아달라’고 그때 요청했다”며 “이 후보가 그렇게(중도보수 공략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레프트wing 역할을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상욱 국민 의힘 의원에게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동참하실 수 있다고 저희에 의사 타진이 온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3선 의원인 권오을 전 의원도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구미하이테크 밸리 물류용지 분양공고

1. 분양대상 토지

사업지구	구 분	토지면적(㎡)	분양예정금액(원)	신청예약금(원)	공급방법
구미하이테크밸리	물류용지	15,271	3,417,115,000	171,000,000	추첨
		15,273	3,417,518,000	171,000,000	
		59,728	13,364,745,000	669,000,000	

2. 신청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분양(입주)공고	‘ 25.04.30.(수) ~ 05.14.(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actoryon.go.kr (고객지원/분양·처분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www.kicox.or.kr (고객마당/입찰/임대)
		한국수자원공사 온라인청약시스템	kwater.or.kr/land
입주자격 확인	신청 전 개별 확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수출대로 127)	입주자격 확인
분양(입주) 신청	‘ 25.05.07.(수) 10:00 ~ 05.14.(수) 17:00 (영업일에 한함)		신청금 (분양금액의 5%이상) ※붙임1: 토지목록/계좌 참고
분양대상자 선정(추첨)	05.15.(목)~ 05.16.(금) (추첨일 별도안내)		경합 시 추첨
분양(입주) 계약체결	05.21(수)~ 05.22.(목) (영업일에 한함)		계약금(분양금액의 10%) ※붙임1: 토지목록/계좌 참고

3. 분양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대상업종)에 적합한 자

4. 입주대상 업종

(1) 참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업종
(2) 화물터미널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913 업종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입주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온라인청약시스템(kwater.or.kr/land)을 참고해주시시오.

5. 분양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입지혁신팀(070-8895-7733)/K-water 구미사업단 판매보상부(054-479-4216.8)

2025년 4월 30일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장

최상목 “대선 후 2차 추경, 신용평가사 우려 있어”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취약계층 중심 편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6·3 조기대선’ 후 2차 추경 편성론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을 만나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와 관련해 묻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2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째날에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제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추경 사업과 규모가 모두 상황에 맞지 않다고 최소 15조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일단 복지 지출에 대해 재정의 역할은 계속 필요하고,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왔다”며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입장을 내놴다. 이재명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 후 취재진과 만나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 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질문에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선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도 SKT를 사용한다며 SKT를 사용하고 있는 장·차관은 손을 들고라고 했다. 정 의원의 물음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본인도 SKT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유심 불량량 부족 사태 따른 시민의 극심한 피해가 있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이동통신 3사의 유심 물량을 모두 확보해도 600만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예약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동통신사가 전액 1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KT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태홍 기자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두근두근

두근두근 프로젝트 #1

아이의 미래를 가슴 뛰게 하는 금융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웃음과 행복만 가득한 세상을 위해

BNK금융그룹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그대로
함께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씬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SKT 유심 해킹’ 파장… 제휴 신용카드 가입자 불안 고조

롯데·신한·삼성 등 7개 카드사
SKT와 제휴 신용카드 출시
업계, 금융정보 유출 가능성 일축
휴대폰 인증방식 변경 권고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자구책 마련

SKT 유심 정보 유출 여파로 소비자
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제휴 신용카
드 가입 고객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는 결제 및 금융거래내역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더 큰 피해
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SKT와 제
휴를 맺고 신용카드를 출시한 카드사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N
H농협카드)는 총 7곳이다. 그 가운데 S
KT와 협업을 통해 가장 많은 상품을 출
시한 곳은 롯데카드다. ‘롯데카드 TEL
LO T라이트’와 ‘롯데 티다롯데카드’,



SKT유심 정보 유출 여파에 제휴 카드에 가입
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함께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롯데 TELLO SE 카드’ 등 3가지를 운
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
대카드 등이 신용카드를 2장씩 운영하
고 있으며 우리카드와 NH농협카드는

각각 1장씩 출시한 바 있다. SKT가입
고객은 2500만명에 달한다. 전월 실적
만 맞추면 통신비를 10% 가까이 아낄
수 있는 만큼 신규 회원 유치에 효과 노
릇을 해온 바 있다.

하지만 SKT 유심 정보 유출 이후 개
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움
직임이 분주하다. SKT 유심을 교체하
기 위해 ‘오픈런’을 하는 등 복새통이
다. 카드업계는 SKT 유심 정보가 해킹
당하더라도 카드 가입 고객의 정보가 함
께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신용카드사는 고객의 금융 정보와 함
께 소비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모두 암호화되어 있으며 사용자
와 카드사 내부 관련 담당자 외에는 열
람이 불가능하다. 권한이 없다면 카드
사 직원 또한 소비데이터를 살펴볼 수
없는 구조다. 내부 직원도 열람할 수 없
는 정보를 제휴사가 보유할 리 만무하

다는 것.

신용카드를 출시하기 위해 업무협약
을 체결하더라도 고객 정보를 제휴사와
공유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사가 제휴카
드 및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출
시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다. 중소 규모
기업이 신용카드사에 공동 마케팅을 제
안하거나 카드사가 대형사에 제휴를 권
유한다. 그러나 소비자 데이터를 자산
으로 인식하는 만큼 두 가지 경로 모두
소비자데이터는 각사가 별도로 관리하
고 있다. 물리적으로 제휴사의 보안 문
제가 카드로 확산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법이 강화하면서 소비자 정보는 관련
직군에 있는 것이 아니면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 민감 정보가 대거 포함된
만큼 보안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유심을 해킹한 사례인 만

큼 신용카드 데이터가 불필요하다는 의
견도 나온다. 본인인증 수단이 다채로워
지면서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사
를 통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 만큼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카드사 데이터
를 빼돌릴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카드사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책도 내놓고 있다.

삼성카드는 휴대폰 인증방식 변경을
권고하면서 SKT 사칭 연락 등을 경계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롯데카드와 KB
국민카드는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유
심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본인인증 수단이 다양해
지면서 민감 정보 관리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라며 “카드사의 경우 데이터
를 ‘마스킹’ 처리하고 암호화해 관리하
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iM금융, 1분기 ‘깜짝 실적’… 밸류업 재시동

전년 대비 순이익 38.1% 급증
PF 총당금 리스크 해소 기대도

iM금융이 1분기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iM금융그룹은 1분기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38.1% 증가한
1543억원을 나타냈다. iM증권이 흑자
전환하는 등 전 계열사에 걸친 자산건전
성 관리에 따라 대손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해 실적에서 발목
을 잡았던 증권 부문이 호조를 보인 것.
iM금융이 올해 경영 목표로 실적 개선
에 기반한 주주환원 확대를 제시했던 만
큼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은행 부문에서는 iM뱅크가 1분기 당
기순이익으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4.
7% 증가한 1251억원을 기록했다. 대출
성장 관리 및 순이자마진(NIM)이 소폭
하락한 영향으로 이자마진은 감소했으
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로 대손비용
이 하향 안정화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iM금융은 지난해에만 7324억원에
달하는 총당금을 적립했다. 직전년도
대비 1256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부

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취급이 잦
았던 iM증권이 2023년(1288억원)과 비
교해 2배 넘게 늘어난 3061억원의 총당
금을 적립하면서 그룹 전체 실적 하락
으로 이어졌다.

다만 총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하면
서 2020년 말 136.8%에 달했던 iM증권
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지난해 말
에는 45.5%까지 줄었다. 부실 위험이
큰 브릿지론에 대해선 70% 이상의 총
당금을 적립했다. 지난해 막대한 금액
을 선제 적립한 만큼, 올해 들어 총당금
적립액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전병규 iM금융 부사장(CFO)은 지난
2월 실적발표에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
해 총당금을 적립한 만큼, iM증권은 올
해 PF 총당금 부담에서 완벽히 벗어날
것”이라면서 “포트폴리오나 재무 전략
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24년을 기
점으로 PF 관련 불확실성을 끊고 간다
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iM금융이 올해 호실적을 거둘 것이
란 기대가 나오면서 자사주 소각과 분
기 배당 도입을 비롯한 ‘밸류업’ 전략에
도 관심이 쏠린다. iM금융은 지난해 금
융지주 가운데 홀로 실적 하락을 기록

하면서 금융권의 ‘밸류업’ 기조에도 다
소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초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신년
사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밸류
업 과제를 이행하고, 하이브리드 बैं킹
그룹을 향한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당면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그룹 경영 목표를 제시
했다.

실제 iM금융은 지난 2월 실적발표에
서 올해 총 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는 2027년까지 1500억원의 자사주를 소
각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주주총회에서는 사명 변경을
의결하면서 분기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
의 결의안을 함께 의결했다.

다만 분기 배당이 이른 시일 내에 도
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iM금융 관계
자는 “지난 주총에서 의결한 내용은 분
기 배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 내
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향후 분기 배
당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
련했다”라면서도 “(분기 배당의) 시행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
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새마을금고재단,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지역금고와 온정 나눔행사 지원사업
4억 규모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조성

새마을금고가 지역별 맞춤형 사회공
헌활동을 실천한다.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온
정 나눔행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총 80곳에 4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조성
했다. 가정의 달·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사회 축제 및 특식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저소득 아동 여름캠프 ▲
특식 및 김장 ▲문화 소외지역 공연 ▲
장수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별 맞춤
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지역마다 지
원 필요대상과 내용이 다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협업한다. 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봉사활동 등을 함께하면서 공동체 정신
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 MG지역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은 “온정 나눔행사는 단순한 기부가 아
닌, 우리 이웃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 내
기 위한 나눔의 실천이다. 앞으로도 나
눔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
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국민은행, 현대차그룹 협력업체에 600억 금융지원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진출 활성화
중견사 최대 870억, 중소기업 30억 가능

KB국민은행은 현대자동차그룹, 신
용보증기금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글
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차그룹 협력업체에 총
6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해외수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B국민은행과 현대차그룹은 각각 20

억원씩 총 4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
별 출연하며, 협약보증서를 담보로 총
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대차그룹의 추천을 받
은 중소·중견기업으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다.

지원대상 기업은 5년간 보증비율
100%, 고정보증료율 0.8%가 적용되는
우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
한도는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70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
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과 별도 협약을 통해 최초 1년간은 보증

료 전액을, 이후 2년간은 0.3%p 보증료
를 지원함으로써 협력업체의 금융비용
을 절감해 줄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계속되는 내
수 부진과 미국의 상회 관세 조치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
이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
소하고 경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
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가며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겠다”고 전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힐스테이트 두정역 잔여세대 선착순 계약

천안 서북구 신흥 주거타운 탈바꿈

‘힐스테이트 두정역’이 잔여 세대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11개동, 전용면적 84~
170㎡, 총 997가구 규모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뛰어
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으며 지상에
배치된 커뮤니티 시설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 설계가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두정역 주변은 천안시
서북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
고 있다. 반경 1km 내 약 40개 단지, 2만
여 가구 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되고
있다. 수도권전철 1호선 두정역을 걸어
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두정역에서 1
정거장 거리인 천안역은 향후 수도권광
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연결될
예정으로 향후 서울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두정역’ 단지 조감도. /현대건설

주변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
백화점, 메가박스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다. 도솔광장, 두정공원, 천안
천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희망초, 북
일고 등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
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
로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강화 전 상대적으로 여유 있
는 대출 여건 속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전지원 기자 jiw13@

LG엔솔, 프랑스 리사이클 거점 구축… 연 2만톤 처리 목표

프랑스 1위 리사이클 업체 DBG 합작
사용 후 배터리·공정 스크랩 현지 처리
2027년 가동목표, 원재료 공급망 강화
EU 재활용 규제 선제대응 포석 마련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 내 최초의 한-유럽 합작 배터리 리사이클 기업을 설립한다. 유럽 내 원재료 조달과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부터 판매, 리사이클까지 배터리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LG에너지솔루션은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및 환경 서비스 기업 데리시부르그(DBG)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의 지분 비율은 50대50이며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신규 합작법인은 현지에서 수거된 사용 후 배터리 및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을 안전하게 파쇄·분쇄해 검은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 ‘블랙 매스’를 만드는 전처리 전문 공장이다.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 지역 브뤼에르 쉬르 우아즈에 오는 2026년 착공한 뒤 2027년 본격 가동을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시작하며 연간 2만 톤 이상의 사용 후 배터리 및 스크랩 처리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전처리 과정으로 추출된 블랙 매스는 후처리 공정을 통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메탈로 재생산되고, 이후 양극재 생산과정을 거쳐 LG에너지솔루션 글로벌 생산시설에 최종 공급된다.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생산 거점인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을 통해 제공된 배터리 공정 스크랩과 DBG가 프랑스 및 인근지역에서 수거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원료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자동차공업회(ACEA)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15%를 차지할 만큼 배터리 수요가 큰 시장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자원 또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BG는 프랑스 메탈 재활용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프랑스 전역에 200여 개가 넘는 수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빠르게 증가하는 프랑스의 사용 후 배터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국외 운송이 까다롭고 운송 비용도 높아 원활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배터리 수요가 많은 지역 내 전처리 공장 설립이 중요하다”이라며 “프랑스에서의 이번 협력이 유럽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확대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유럽 배터리 재활용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시행된 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로 의무화된다.

LG에너지솔루션 CSO(최고전략책임자) 강창범 전무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구축은 물론 유럽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서도 차별화된 기술 및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최고의 고객가치를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포스코홀딩스

7억弗 그린본드 발행

에너지소재사업 탄력

포스코홀딩스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채권을 발행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해외 채권시장에서 5년 만기 4억달러 규모, 10년 만기 3억달러 규모의 2개 트랜치에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린본드는 ESG채권 중 하나로, 전기차, 재생에너 등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4월 2일 미국 트럼프 관세 부과 발표 이후 글로벌 채권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발행 여건이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5년 및 10년 장기물 발행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미래성장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

/차현정 기자

LG전자

차량 IVI 솔루션 첫선

미디어텍과 미래차 공략

LG전자가 대만 반도체 기업 미디어텍과 협력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시대를 겨냥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IVI) 솔루션을 공개했다.

LG전자는 내달 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모터쇼인 ‘오토 상하이 2025’ 미디어텍 부스에서 새로운 IV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IVI는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오락을 의미하는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차량용 통합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의미한다. LG전자는 미디어텍의 차량용 IVI 통합 시스템온칩(SoC) ‘디멘시티 오토 플랫폼’에 구글과 함께 개발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반의 ‘동시 다중 사용자(CMU)’ 솔루션을 탑재했다.

/이혜민 기자

현대차, 북미 수소 상용차 시장 공략 본격화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공개 美 조지아 ‘HTWO 에너지’ 허브 구축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에 신형 수소전기트럭을 선보이며 북미 수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청정운송수단 박람회 ‘ACT 엑스포 2025’에서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주행 경험 등 기존 모델에 대한 북미 고객들의 피드백을 개발 과정에 적극 반영했으며, 북미 지역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형과 기후 환경을 고려한 차량 적합성 테스트를 거쳐 탄생했다.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개선을 통해 차량의 출력을 향상했고, 기존 북미 판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에 탑재되지 않았던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

탈 경고 ▲측방 충돌방지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새롭게 적용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수소는 물론, 전기까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플랫폼인 ‘HTWO 에너지’ 운영 계획도 밝혔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인근에 ‘HTWO 에

너지 서베너’를 조성한다. 대형 상용차 전용 시설로 운영되는 HTWO 에너지 서베너는 수소 생산과 공급, 충전 장비와 시설 투자 및 운영을 담당하는 하이드로플릿(HydroFleet) 등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다.

HTWO 에너지 서베너는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약 17대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양인 하루 1200kg 규모의 수소 생산 및 충전이 가능하고, 수소 공급 능력을 일 최대 4200kg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해 24시간 운영되며, 향후 전기 충전 시설도 추가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올인원 세탁건조기’ 10만대 팔렸다

하루 평균 230대 이상 판매

삼성전자의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출시 1년 만에 국내에서만 누적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비스포크 AI 콤보’를 출시한 이후 하루 평균 230대 이상 판매하며 올인원 세탁건조기 시장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잡았다고 29일 밝혔다. 출시 초기부터 3일 만에 1000대, 12일 만에 3000대를 판매하며 ‘AI 가전 = 삼성’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하나로 합친 올인원 제품으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중간에 옮길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별도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때보다 약 40% 공간을 줄일 수 있어 공간 활용도도 높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성능과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2025년형 신제품을



삼성전자 모델이 국내 누적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한 ‘삼성전자 AI 콤보’ 세탁건조기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선보였다. 신제품은 기존 대비 건조 용량을 3kg 키운 18kg로, 국내 드럼 세탁건조기 중 최대 수준이다. 열 교환기 구조 개선과 예열 기능 강화로 건조 시간도 20분 줄었다. 제품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용량을 늘려 공간 효율을 높였으며, 스마트홈 기능도 강화됐다. 세탁부터 건조까지의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AI 홈’ 스크린과 더 똑똑해진 음성비서 ‘빅스비’를 탑재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혜민 기자 hyem@

수소 수송용 강관 국제인증 테스트 통과

현대제철 RINA-CSM 시험 통과

현대제철이 수소 수송용 강재 소재로 개발한 고기능 후판이 국제적으로 성능을 인정받았다.

현대제철은 자사의 고기능 후판이 적용된 수소 수송용 강관이 국제 인증 기관 RINA-CSM의 고압 수소 환경 테스트를 통과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소 배관 설계·시공 규격인 ASME B31.12 성능 요건에 충족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테스트는 현대제철의 후판을 사용해 자회사인 현대스틸파이프가 수소 수송용 대구경 강관을 제작하고, 현대종합금속이 용접 재료를 담당하는 기술 협업으로 진행됐다.

3사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대구경 강관은 모든 시험 부위에서 우수한 결과를 기록해 고압 수소 환경에서 충분한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고압의 수소를 생산지에서 수요지까지 이송하는 대구경 강관은 높은 압력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고내압·고인성 후판 강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국제 설계 기준인 ASME B31.12 규격을 만족하는 고성능 후판 강재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RINA-CSM 테스트 통과가 현대제철이 국내 철강업계 중에서 수소 인프라 관련 강재 분야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성능 입증은 수소 시대를 대비해 현대제철이 축적해온 고기능 강재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검증 받은 사례”라며 “향후에도 현대제철의 고기능 후판을 수소 배관망 및 저장 설비 등 다양한 인프라에 폭넓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QD-올레드 BI 공개

상표 출원 준비 착수

삼성디스플레이가 프리미엄 TV와 모니터 제품에 주로 탑재되는 ‘QD(퀀텀닷)-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개하고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BI는 QD-올레드의 첫머리 글자인 ‘Q’를 이미지화해 청색 올레드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QD-올레드 고유의 넓은 컬러 스펙트럼을 표현한 그라데이션 디자인을 적용했다.

QD-올레드는 2021년 말 처음 상용화된 이후 삼성전자, 소니, 델(Dell), 마이크로소프트인터네셔널(MSI), 에이수스(ASUS), 에이치피(HP) 등 18개 글로벌 브랜드의 170개가 넘는 TV와 모니터 제품에 탑재됐다.

/이혜민 기자

전기차 초고속 충전 경쟁 치열… 인프라·안전성 확보는 뒷전

5분 충전으로 수백 킬로미터 주행
배터리 과부하 등 사고 요인 우려
“기술 상용화, 좀 더 지켜봐야”

중국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5분 충전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로 다가온 초고속 충전 기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인프라와, 안전성 문제에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BYD는 5분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 기술 ‘슈퍼e-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슈퍼e-플랫폼’은 최대 전류 1000암페어(A), 최대 전압 1000볼트(V)의 고전압과 1000kw의 충전전력을 제공한다.

테슬라 최신 슈퍼차저(최대 500kW)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내연기관 주유 시간 수준으로 짧다.

또 다른 중국 기업인 닝더스다이(CA



서울 소재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뉴스시스

TL)는 ‘5분 충전으로 52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기술을 공개했다. BYD의 발표를 상회하는 수치다.

당초 BYD 발표 당시에도 상용화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었지만 이번 CATL 발표를 통해 미래 혁신이 기술이 더 가까이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는 EV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CATL 역시 중국 정부의 EV 육성 정책에 힘입어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으로 성장했다. BYD, CATL의 급속충전 혁신이 입증되면 충전의 불편을 해소해 EV 확산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BYD는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 4000개를 새롭게 짓겠다는 계획이다. BYD는 그동안 자체충전소 없이 타

사 충전소를 사용해왔는데, 이번 초고속 충전을 위해 자체 인프라 구축을 선언한 것이다.

CATL 역시 2세대 선싱 배터리가 올해 67종의 전기차(EV) 모델에 탑재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초고속 충전 기술이 상용화 될 경우 배터리 수명과 에너지 밀도도 높아져 전기차의 성능 자체가 더욱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까지 낮출 경우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대체 할 수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국이 결과를 올해 보여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야기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연기관 주유시간과 동일하게 걸리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본격적인 활황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인프라와, 안전성 문제에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과도한 충전

속도는 배터리에 과부하를 줘 배터리의 수명 감소와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초고속 충전소를 대규모로 설치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초고속 충전은 고출력 전력을 필요해 전력망 강화가 필수다. 기존의 전력망은 고출력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게 배선작업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경제적 투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도 5분에 400km 주행이 가능한 기술이 있지만 안전성 문제에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며 “중국의 경우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며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개발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상용화까지는 지켜봐야 기술의 안전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중기부, ‘기술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클라우드 등 3대 기본서비스 특화

정부가 ‘기술(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린다. 소상공인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인공지능 등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우선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기술 분야 ‘3대 기본서비스’를 특화해 지원한다. 기본서비스는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센터 활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 그동안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분야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화 분야는 기본서비스에 제한하지

않고 현지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경비, 수출용 가상현실 제작비 등 업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의 14개 메뉴판 중 수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메뉴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인 개발, 전시회, 특허·지재권, 인증 등 14개 분야에 걸쳐 8000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수출지원 사업이다.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서도 동일한 수출 마케팅 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또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도 30일부터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강화 조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수출 컨설팅과 연계,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과제의 이행을 위한 바우처도 지원한다. 바우처는 수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K B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활용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약 9만 5000개사)의 56%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화장품, 식음료 등 소비재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비롯해 소상공인이 수출을 통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두산에너지빌, 1300억 연료전환 사업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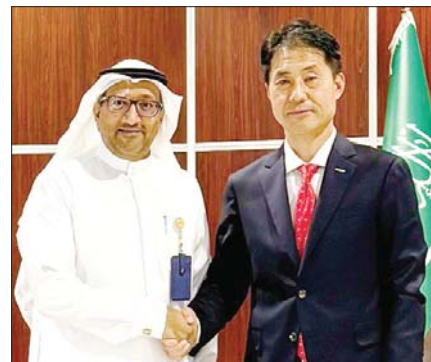
사우디 국영전력회사 마라픽 계약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료전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전력회사인 마라픽과 1300억원 규모의 안부2 발전소 연료전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석유 발전소를 가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오는 2028년까지 연소기, 분산제어시스템 등 주요 기기를 공급하고 시운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연료전환이 완료되면 안부2 발전소는 기존 발전용량은 유지하면서 탄소배출은 전보다 약 25%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부2 발전소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북쪽 약 350km 떨어진 안부 산업단지에 위치하며, 산업단지 내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2013년 1375MW(메가와트) 규모로 준공됐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왼쪽부터) 마라픽 자말 압둘라만 오마르 수석 부사장,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이다. 27일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에서 진행된 안부2 발전소 연료전환 공사 계약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는 당시 보일러, 스팀터빈 등 주기기 공급사로 참여한 바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은 “발주처가 안부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과 품질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100만 폐업시대 현실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시급”

소공연 110여개 정책과제 발표

“골목길을 밝히던 소상공인들이 바람 앞의 촛불이 되어가고 있다. IMF 때보다 더 심각한 내수침체 속에 100만 폐업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긴급지원금 지급과 전담차관 신설 등을 포함한 110여 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100만 폐업시대에 대비해 차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공연은 29일 서울 여의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과제는 수개월간의 발굴 작업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025년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과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와 분야별 90대 과제를 포함한 총 110여 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합회는 지난 17일부터 6일간 전국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정책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긴급지원금 1000만 원 지급과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송치영 연합회장은 “국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번 대선은 ‘소상공인 대선’이 되어야 한다”며 “국빈총 전략과 지역경제 붕괴, 국가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확실한 비전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KCC, 창호 유통시장 본격 진출

‘유통 이맥스 클럽’ 마케팅 강화

KCC가 ‘유통 이맥스 클럽(e-MAX Club Prime Distributor)’을 확대하는 등 창호 유통시장을 추가로 공략한다.

창호브랜드 ‘Klenze’를 통해 프리미엄 창호 시장을 선도하는 동시에 고객 접점인 유통 부문에서 영업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29일 KCC에 따르면 최근 유통 이맥스 클럽에 신규 창호 우수 대리점 30개를 추가하고, 유통 이맥스 클럽 BI 리뉴얼을 단행했다. 또 기존 삼성카드, 현대카드 제휴에 이어 롯데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금융 혜택

의 폭을 넓히는 등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통 이맥스 클럽’은 KCC가 대리점의 창호 가공 기술과 사후관리(A/S)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유통 이맥스 클럽 확대와 함께 KCC는 가공 품질, A/S 만족도, 고객 평가 등 주요 항목을 세분화 해 유통 이맥스 클럽 회원사를 ‘플래티넘(Platinum)’과 ‘스타(Star)’로 등급화했다. 해당 등급에 따라 본사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 대리점의 가공 및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시니어의 소중한 인생 2막을 위한
하나금융그룹만의 솔루션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

→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하나더넥스트 랩 시리즈

안정적인 삶을 위한 균형잡힌 투자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 은퇴 전/후 손님을 위한 미래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



국내

하나더넥스트 K배당재투자랩

랩 수수료 | · 선취형 : 선취 0.6%, 후취 연 1.2% · 기본형 : 후취 연 1.5%



해외

하나더넥스트 글로벌인컴랩

랩 수수료 | · 선취형 : 선취 0.8%, 후취 연 1.0% · 기본형 : 후취 연 1.5%

랩상품 Point

- 안정성 추구 전략으로 수익 다각화
- AI 알고리즘을 통한 투자 최적화 추구
- 손님 니즈에 따른 투자 지역 선택 가능(국내 / 해외)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0164호(2025.01.17~2026.01.16), CC브랜드250117-0267

하나증권

‘랜섬웨어 공격’ 시름 앓는 中企 방어전략·보안역량 고도화 필요

지난해 랜섬웨어 공격 15% ↑
데이터 유출피해 1.9억건 이상

예산·인력 부족한 中企 취약
中企 31%, 사이버 공격 피해

랜섬웨어 공격 방식이 고도화·다변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랜섬웨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사이버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이달 펴낸 ‘ICT(정보통신기술) 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손해보험회사 트래블러스의 ‘2024 사이버 위협 리포트’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5243건의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악성코드(Malware)의 합성어로, 사용자의 시스템이나 파일을 암호화해 접근을 차단한 뒤 돈을 요구하는 해킹 수법이다.

지난 2024년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피해는 1억9500만건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기업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보안 위협에 특히 더 취약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11월 발표한 보안 리포트에 따르면, 300명 미만 사업장의 IT 보안 제품 의사 결정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중소기업의 31%가 랜섬웨어, 피싱, 데이터 유출 등의 사이버 공격 피해를 입었다



랜섬웨어 공격 방식이 고도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고 응답했다. 피해 업체의 80%는 공격을 받은 후 약 10일간의 시스템 정지로 고객 신뢰를 잃고, 영업 중단을 경험해야 했다.

ICT 브리프 보고서는 ▲구독형 랜섬웨어 서비스 등장 ▲합법적 도구 악용 및 정교한 표적 침투 기술 발전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노린 맞춤형 공격 확대 ▲암호화 후 몸값 요구 방식에서 데이터 유출 협박으로 전략 전환 등 랜섬웨어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랜섬웨어 공격의 56%는 파워헬(원도 운영체제에 기본 탑재된 시스템 제어용 명령어 도구)과 같은 합법적 도구를 악용, 보안 솔루션 탐지를 우회해 기업 IT 인프라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블루온디’, ‘무브잇’ 등 다수 기업이 사용하는 공급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사례가 급증하면서 단일 침투로 수천개 기업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연쇄 공격이 벌어졌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보안 인프라와 패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공격하는

전략으로 내부 시스템 침투 성공률도 높아졌다. 아울러 공격 대상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험 여부와 보장 범위를 사전에 조사한 뒤 공격해 보험금 한도 내에서 몸값을 책정하는 정교한 표적 선정 기술이 등장하면서 공격 효율성 또한 향상됐다.

지난 2024년 랜섬웨어 공격자의 94%가 데이터 탈취를 시도했다. 과거 ‘암호화 후 몸값 요구’ 방식에서 ‘데이터 유출 협박’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이다. 데이터 강탈 기반 공격의 평균 피해 비용은 52만1000달러(약 7억4970만원)로 단순 암호화 공격 대비 2배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인적 보안 역량을 고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사전적 사고 대응 체계 구축 ▲중요 데이터 백업 유지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 수립 ▲정기적 모의 피싱 훈련 ▲보안 교육 강화 ▲사이버 보험 및 외부 대응 파트너와의 사전 협력 체계 확보로 조직 회복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KT, 계명대에 ‘멀티 AI 플랫폼’ 지원

다양한 LLM·맞춤형 교육 서비스

KT가 계명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약 4700명에게 다양한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멀티 AI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KT가 AI 코스웨어 기업인 타임리와 함께 개발한 이 플랫폼은 오픈AI의 ‘챗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퍼플렉시티의 ‘퍼플렉시티 AI’ 등 총 5가지의 LLM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해서 제공하는 AI 기반 서비스다.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

태로 이용할 수 있다. KT의 AI 기술에 관한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개발되어 이용자에게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전공 학습 정도에 따라 성취도를 예측하고,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진로를 추천하는 기술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논술 첨삭을 자동화한 기술 등이 활용된다.

KT는 학습 또는 업무에 필요한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 요약, 번역하는 프롬프트 템플릿도 지원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약 70개의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작,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현대오토에버, ‘클라우드 전문가’ 이경수 영입

〈클라우드인프라센터장 상무〉

AWS·삼성전자 등 주요 IT기업 근무

현대오토에버는 이경수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솔루션아키텍트 리더(사진)를 클라우드인프라센터장 상무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새롭게 만들어진 클라우드 인프라센터는 클라우드 사업부의 직속 조직이다. 이경수 상무는 센터장을 맡아 클라우드 인프라 개발·관리 및 데이터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이 상무는 지난 26년간 삼성전자와



AWS코리아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에서 근무하며 클라우드 기반 IT 전략 수립, 서비스 아키텍처 설계·개발·운영, 정보

보안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다.

이 상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수립 ▲글로벌 인프라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SK C&C, ‘이니스프리몰’ 디지털 전환 완료

동시 접속자 최대 26만명으로 개선

SK C&C는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몰’ 디지털 플랫폼 전환 구축 사업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SK C&C는 고가용성 클라우드 인프라와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플랫폼 성능을 높였다. 프로모션 시기 주문량 급증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했으며, 이니스프리 전사 시스템 표준화와 클라우드 기술 기준 수립으로 시스템 확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6만명, 초당 트랜잭션 처리량 2만 8000건에 달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화면 응답 속도도 평균 0.74초로 대폭 개선됐다.

이니스프리몰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도 탑재됐다. ‘AI케어’ 기능은 피부 상태를 분석해 맞춤형 스킨케어 제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또 AI가 구매 이력과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시간 날씨 정보에 기반해 제품을 추천해주는 기능도 생겼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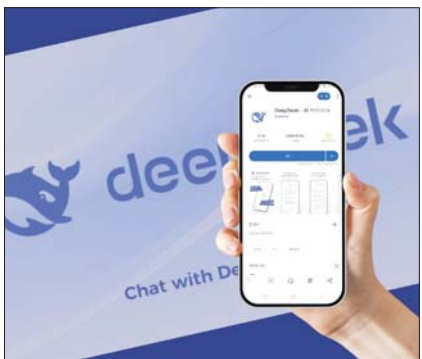
딥시크, 약 2개월 만에 韓 다운로드 재개

개인정보위 시정권고 일부 수용
‘韓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명시
이전된 데이터 파기 여부는 아직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를 약 2개월 만에 재개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 과잉 수집 논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의 사전 실태점검을 받은 바 있다.

2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딥시크 앱이 다운로드가 재개돼 한국에서도 딥시크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제9회 전체 회의를 열고 딥시크에 대해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심의·의결,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딥시크가 국내 출시 당시 중국어와 영어로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 보호책임자 정보 등 필수 기재사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앱 딥시크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권고를 수용하고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했다.

항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키입력 패턴 수집을 예고하고 AI 프롬프트 입력 데이터를 중국 및 미국 서버로 동의 없이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딥시크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볼케이노를 통해 한국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데이터를 전송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국외 이전 시 합법적 근거 구비, 기존 전송

데이터 즉각 파기, AI 학습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opt-out 기능 도입) 등을 시정 권고했다.

이에 따라 딥시크는 최근 한국어판 처리방침을 새롭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해외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학습에 대한 옵트아웃 기능도 지난 3월 17일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권고한 ‘볼케이노로 이미 이전된 프롬프트 입력 데이터의 즉시 파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딥시크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시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seoh@

대어급 IPO 출격 나선다… 공모주 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

DN솔루션즈, 내달 7일 청약 돌입
롯데글로벌로지스·달바, 수요예측
이지스 등 9곳 상장예비심사청구
美 관세정책에 기회·리스크 혼재
항공우주·방위 섹터 활기 가능성

덩치 큰 대어들이 냉·온탕을 오가는 기업공개(IPO)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들어 1분기에만 국내 IPO 시장에서는 12억6550만달러의 뭉치돈이 공모주 시장에 흘러들었지만,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졌다. 투자 전문가들은 “DN솔루션즈 등 ‘대어급 기업’의 상장이 이어지면서 공모주 시장 열기가 다시 고조될 것”이라면서도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종목마다 달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어들 개미들 투심 잡을까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DN솔루션즈는 5월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다음 달 7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



ChatGPT로 생성한 ‘기업공개(IPO)’ 이미지.

대상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 금액은 9119억원에서 1조2585억원 수준이다.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4조1039억원에서 최대 5조6634억원이다.

롯데글로벌로지는 24일부터 30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공모희망가는 1만1500~1만3500원 수준이다. 시가총액은 4789억~56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뷰티 브랜드 ‘달바’를 운영하는 달바글로벌 역시 수요예측에 나섰다.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공모가 희망 범위는 5만4500~6만6300원이다. 예상 시가총액은 6578억~800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신약개발 기업 인투셀과 OLED 부품 제조업체 파인원이 5월 중 수요예측을 거쳐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 심사를 통과하거나 청구하는 기업 수도 늘고 있다. 이달 들어 대한조선, 한라케스트, 에스엔시스, 이지스, 빅텍스, 아로마티카, 비즈로넥스텍, 제이피아이헬스케어, 아이나비시스템즈 등 9개사가 신규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스팩(SPAC·기업 인수목적회사)을 제외한 수치로, 조선,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화장품, 탄소포집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고르게 포진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4월 들어

상장예비심사 승인 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신규 청구 기업도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특히 청구 기업들의 업종이 다양하고 각기 다른 매력을 갖춘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선부른 기대는 낭패

올해 글로벌 IPO 시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가 잇따르며 기회와 리스크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신규 관세 정책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며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반면 항공우주·방위 섹터는 각국의 국방 지출 확대에 따라 투자금이 몰리며 관련 IPO 시장이 활기를 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 영향으로 일부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로 IPO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1분기에 상장한 기업들도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엇갈리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최근 관세 이슈 등으로 주요국 증시가 흔들리며 연초의 고밸류에이션 기대는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다.

박정익 EY한영 감사부문 마켓 본부장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최근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IPO 이후 단기 매매 억제 및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가격이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산정되고 기업 가치 반영이 보다 정확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증시가 뚜렷한 상승 전환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IPO 시장의 반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서학개미, 테슬라·엔비디아 2300억 담았다

해외주식 Click

예탁원, 지난주 주가 반등 ‘순매수세’
전문가 ‘운용비중 축소’ 전략은 유지

주가 반등에 힘입어 서학개미들이 다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동시에, 불확실성에도 대비하는 양면적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관세 정책과 불투명한 실적 전망 등 변수가 상존해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 접근이 요구된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주(4월 22일부터 28일까지)에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각각 8862만달러, 7508만달러씩 총 2300억원(1억6370만달러) 정도 순매수했다. 주가 급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12.19%, 테슬라는 25.66%씩 상승했다.

특히 테슬라는 지난 23일 부진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5월부터 테슬라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상승했다. 테슬라의 1분기 매



ChatGPT로 생성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이미지.

출액은 193억4000만달러, 조정 주당순이익은 27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3.8%, 25.0%씩 하회했다. 전년 동기보다는 각각 9.2%, 40%씩 역성장한 수치다. 특히 차량 인도량이 33만7000대로 13% 감소했으며, 평균 판매가격도 전년 대비 9% 하락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테슬라를 사들이며 투자에 더욱 집중했다. 테슬라는 이번 발표를 통해 6월부터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며, 옵티머스 로봇은 올해 말부터 5년 안에 연간 100만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구체적인 수치들

이 제시되면서도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주당순이익(EPS)이 연평균 2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83.4배에 달하고, 이를 반영한 주가수익성장비율(PEG)도 3.7배로 시장 및 비교 기업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운용 비중 축소’ 전략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자동차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영향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비롯해 애플,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등 나스닥 대표 종목들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관세 정책 여파로 주요 기업들의 이익 가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나스닥1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시장 지배력이 높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편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익 가시성의 하락은 불가피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기업들은 배당을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닥 기업탐방

아이지넷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아이지넷. 얼핏 보면 어느 IT 기업과 다를 바 없지만, 이곳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특별하다. 보험 상품 약관과 가입 정보, 고객의 건강 상태와 생애 주기 등 ‘사람과 삶’을 기록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더 나은 보험’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아이지넷은 단순한 보험 비교 플랫폼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의 미래를 다시 쓰겠다는 분명한 정체성과 지향점을 지닌 기업이다.

데이터 기반 보험 미래 다시 쓸 것
보험 진단·추천 모바일 앱 ‘보닥’
누적중개액 5000억 국내 1위 기록
국내 넘어 베트남 등 동남아 공략

아이지넷은 ‘인슈어테크’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2014년, 보험 산업의 비효율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데이터로 풀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현재 아이지넷은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았고, 최근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하며 또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보닥(Bodo c)’이라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기반의 보험 진단·추천 앱으로, 누적 다운로드 200만건, 누적 중개액 50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1위 인슈어테크 앱으로 성장했다. 사용자는 보닥을 통해 자신의 보험 가입 현황을 조회하고, 보장 과부족을 진단받을 수 있다. 필요한 상품을 AI가 추천해주는 과정도 경험할 수 있다.

아이지넷이 보유한 보험 관련 데이터는 업계 최대 수준이다. 국내 보험사 전 상품

과 약관 30만건, 누적 상담 데이터 37만건, 계약 데이터 4만5000건, 마이데이터 연동 29만건 등 방대한 정보를 학습한 AI 엔진은 개별 소비자의 니즈를 정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보장 설계를 도출한다.

회사는 B2C 플랫폼뿐 아니라, B2B SaaS 솔루션도 적극적으로 제공 중이다. 보험사·증권사 등 주요 금융기관에 AI 보험 진단·추천 엔진을 공급하며, 자체 개발한 ‘플래너웹’, ‘마이리얼플랜’, ‘클락패스’ 등 보험 분석 및 영업 지원 툴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클락패스’는 고객의 건강 및 유전자 정보를 보험 진단에 반영해 정확도를 끌어올린 B2B2C 맞춤형 솔루션이다. 기업 고객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기술력과 확장성 면에서 모두 주목받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아이지넷은 국내를 넘어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인슈어테크 기업 ‘메디치(Medici)’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건강 관리, 보험금 청구, 보상 상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보험을 넘어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보험 분석이 단순한 계약 성사의 도구를 넘어, 고객의 삶 전반을 케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아이지넷 관계자는 “보험 산업은 여전히 아날로그 중심이고, 고객은 복잡한 약관 앞에서 불안해한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간극을 줄이고,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이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아이지넷은 데이터와 기술을 무기로 보험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기업이다. ‘보험의 재발명’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아이지넷의 도전은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대환 기자 kdh@

예탁원, 1분기 DLS 미상환잔액 11.8% ↑

올해 1분기 파생결합증권(DLS) 미상환 잔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DLS 미상환 잔액은 34조23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DLS는 금리나 환율 등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일까지 특정 범위 안에서 움

직이면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의 금융상품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일부 알려졌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자산 가격이 급변해 설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1분기 DLS 발행금액은 5조8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발행 종목 수도 578종목으로 같은 기간

12.2% 늘었다. 발행 형태별로는 공모 발행이 전체의 28.7%(1조6941억원), 사모 발행이 71.3%(4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공모 발행은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한 반면, 사모 발행은 44.9% 급증했다.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금리연계 DLS 발행액이 전체의 78.2%(4조6108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신용연계 DLS는 11.4%(6692억원)를 기록했다. 이 두 유형이 전체 발행금액의 89.6%를 차지했다.

/원관희 기자

윤진식 “조선·방산 규제완화·협력 강화, 美에 적극 전달”

〈무협 회장〉

무협·산업부, 5월 대미 아웃리치 예정
조선·방산 규제완화·RDP-A 촉구
원전·배터리 R&D 예산·세제지원 요청
관세 충격 최소화 위한 대응체계 마련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관세조치 확대에 대응해 업계와 함께 조선·방산 등 우리나라 주요 전략산업 현안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2차 대미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진식 무협 회장,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비롯해 HD현대, 한국항공우주산업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KAI), LIG넥스원, 삼성SDI, 두산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요 기업 및 협단체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산업연구원의 ‘트럼프2기 한·미 산업 협력을 위한 제언 및 수출 시장 확대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업종별 자유토론과 건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로 인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세협상과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선 분야 규제완화 및 협력 강화 △방산 분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원전·배터리 분야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국과 동맹국 간 방위산업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정부 간 협정으로, 일방 ‘방산 FTA’로 불린다. 협정 체결 시 미국산 우선 구매

법(BAA) 적용이 면제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목소리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5월 중순 예정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조선·방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비상수출대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호혜적인 대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난, 고객 난방비 30억 절감 성과거뒀

EERS 평가 3년 연속 우수 등급
에너지 절감 목표 초과 달성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사업 평가’에서 계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비계량 부문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고객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정부가 매년 한난, 한국 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한다.

한난은 지난해 ▲차압유량 조절밸브 보수지원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지원 ▲고온설비 보온재 교체 등 고객의 효율적·경제적 난방 사용을 위한 총 7개 EERS사업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자 중 처음으로 정부가 설정한 절감목표인 2만3975Gcal(기가칼로리)를 초과한 2만5184Gcal을 달성, 약 30억원 상당의 고객 난방비를 절감했다.

한난은 아울러 고객친화적 사업 진행을 위해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금 상향, 지원 대상 확대, 찾아가는 홍보 1대1 컨설팅 등을 시행했으며, 임대아파트를 사업대상자로 포함해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평가에 포함

되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난은 올해 이같은 ‘고객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을 고객이 쉽게 기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부담부담 ↓ 따뜻↑, 한난 효율+’로 명명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3년 연속 EERS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후 지역난방 설비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술이전·금융지원 통합 플랫폼 마련

환경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환경부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환경 연구개발(R&D) 기술이전-금융지원 연계 기술사업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동시에, 금융지원까지 연계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중소기업과새싹기업(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협업한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9개 기술보유 기관이 참가해 총 8건의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아울러 57건의 출품 기술에 대한 상담창구도 운영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 간 활발한 교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에서 소개된 기술은 ▲토양오염도 진단용 미생물-대사체 분석 기술(한

국과학기술 연구원) ▲재활용 페트(PET)의 고순도 해중합 촉매 기술(한국화학연구원) ▲장시간 효과 지속 및 세균 번식 막는 항균·방오 코팅 소재(한국화학연구원) ▲잔티노박테리움 균주 및 비올라세린 이용 모발건강유지·탈모증상 완화 기술(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다.

기술이전 절차에 관심 있는 기업은 연구자 및 기술거래기관과 상담을 통해 기술평가, 협상, 계약 등의 실질적인 이전을 모색할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지원 절차를 소개했다.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맞춤형 상담 등도 마련됐다.

서영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한 환경기술이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녹색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정책, 금융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통계청

마늘·양파 재배면적 감소

쌀보리·밀 등 타작물 전환 영향

올해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타작물 전환은 증가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2942ha(헥타르)로 1년 전보다 1.5%(347ha) 감소했다.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산지 가격, 생산 비용 등 영향을 받는데, 마늘값 하락 등이 영향을 줬다.

특히 전남(-16.0%)과 제주(-24.3%) 지역에서 재배면적 감소폭이 컸다. 다른 작물로 전환한 경우가 늘어났다.

양파는 2023년보다 지난해 가격이 좋았으나 기후 여건이 좋지 않아 파종시기 지연되는 등 생육에 어려움을 겪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남과 제주 지역 마늘·양파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했다”며 “제주에서는 당근으로, 전남에서는 봄배추와 쌀보리, 밀 등 다른 작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재해율 0’, 안전경영 입증

석유공사, 안전관리 심사서 최고 등급
안전리더십·문화개선 전사적 역량 강화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서 사실상 최고 등급인 2등급을 획득하며, 공사의 안전 최우선 경영 철학이 탄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해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총 5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72개 공공기관이 심사를 받은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어, 석유공사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은 셈이다.

석유공사는 기관장의 ‘안전 최우선’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 전담 조직인 ‘SHE 추진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을 강화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해율 제로(0)’ 목표 설정 ▲안전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안전문화 진단과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전사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현장안전경영의 일환으로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해 원유입출하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석유공사

적 안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또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8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상대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P등급)을 유지하며 현장 안전성 강화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투명경영 입증… aT, 3년 연속 공시 ‘무벌점’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3년 연속 무벌점 기록을 냈다. 29일 aT에 따르면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무이한 성적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주관 점검에서 ‘우수공시기관’에 선정됐다.

통합공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연 3회 통합공시를 점검해 불성실 공시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한 기관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한다.

aT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무벌점 공시를 이어 왔다. 2024년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전체 310개 공공기관 중 14곳만이 선정된 우수공시기관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지난 2022년 기재부가 선정 기준을 개편한 이래로 농식품부 산하기관 중 aT가 유일한 사례를 남겼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가점검 시스템 강화 ▲오류사례 학습을 통한 공시역량 내실화 ▲담당자 소통 확대를 통한 정확성 제고 등에 힘쓴 결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인정받았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대한 임직원 모두의 책임 의식이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봄날의 노래

손병순 / 정지광

2인 기획 초대전



손병순 SON BYEONGSUN



봄을 만나러 가다
162.2x130.3 watercolor on paper 2022



정지광 JEONG JIKWANG



눈부신 일상
53.09x33.4 화선지 채색 골라주 2025

2025.5.1 Thu - 5.11 Sun **갤러리아람**

갤러리아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15 신안빌딩 1층 문의 02.6743.3370

관람시간 11:00 ~ 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주최 Gallery **아름**

후원 동성제약주식회사 신안개발

경남도, 해양관광 프로그램 운영... “차별화 경험 선사”

한국관광공사·엑스크루 협력
‘남남해·다있찌 통영’ 등 진행
“경남, 해양관광 중심지 조성”

경상남도과 경남관광재단이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엑스크루 플랫폼을 통해 아오도어 해양관광 상품을 출시한다.

엑스크루는 국내 최초 액티비티 소셜 플랫폼으로 5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관광 상품 운영에 특화된 기업이다. 최근 경남관광기업 지원센터의 ‘2025 경남관광스타 트립 6기’ 성장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부울경지사와 협업으로 남해와 통영 등 도내 대표 해양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참여형 해양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통해 경



경상남도는 엑스크루 플랫폼을 통해 아오도어 해양관광 상품을 출시한다. /경상남도

남 해양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되는 4가지 관광상품은 ▲남해의 미식 아이템을 활용하는 ‘남남해’ ▲통영의 다찌문

화를 내세운 ‘다있찌 통영’ ▲사랑도를 무대로 하는 ‘우정도 사랑도’ ▲육지에서 진행되는 ‘육망의 보물섬 육지도’ 등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엑스크루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참여자 모집과 콘텐츠 확산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도 본격 추진한다. 배너 노출, 푸시 알림, SNS 후기 확산, 프로모션 영상 제작 및 게시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그램 현장을 담은 1분 분량의 영상 2편을 제작해 관광상품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 부울경지사와 엑스크루 간 4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해양관광

상품 기획·운영과 마케팅 수행, 지원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경남 아웃도어 해양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번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경남의 독특한 해양 자원을 부각하고,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경남을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중에는 해양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지역 기업 육성지원 공모가 예정돼 있으며 경남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과 상품화 역량을 갖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농협중앙회, 영양군 산불 피해복구 성금 전달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영양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성금 4억 원을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및 경북지역본부는 농민들을 포함한 영양군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부를 결정했으며 성금은 지역 내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속도

평화시장 등 사업 대상지 확정
내년부터 부지 매입 절차 추진

부산시는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주차장을 건립 또는 증축 지원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존 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량 및 보수하는 ‘주차장 개보수사업’ ▲시장 인근의 공공주차장이나 민간 사설 주차장 이용료를 지원하는 ‘주차장 이용보조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사업 대상지는 총 9곳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3곳(당감골목시장·수영팔도시장 주차장 건립, 망미중앙시장 주차장 증축) ▲주차장 개·보수 3곳(장림골목시장, 부산평화시장, 명지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3곳(창신상가, 부산남문시장, 부산진시장) 등이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진행해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적정성 여부를 심사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최종선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 9곳을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95억 1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3곳 총 91억 7000만원, 주차장 개·보수 3곳 총 1억 4000만원, 주차장 이용보조 3곳 2억원이다. 시는 대상 사업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을 이달 말까지 중기부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주차장 부지 매입 절차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진구 당감골목시장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당감시장·당감새시장 등 인근 시장의 이용객도 저렴한 이용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돼 3개 시장의 상권 활성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형준 시장(사진)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시장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차환경개선을 포함해 시설 현대화 등 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주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풍력 현장 기술인력 키운다

에너지기술평가원 공모사업 선정
국비 30억 등 사업비 64억 확보

경북도가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풍력 현장 기술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64억원(국비 30억, 도비 17억, 군비 17억원)을 확보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내 풍력 운영관리·유지보수 산업의 해외 의존 탈피를 위해 현장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된다.

경북도가 주관하고 영덕군과 포항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경북도는 2020년 8월 산업부로부터 에너지 분야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거점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돼 풍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왔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핵심 교육 훈련 시설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76

억, 도비 57억원, 군비 57억원)이 투입돼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에 준공됐다.

경북도는 국제기준의 교육훈련기자재 21종을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앞으로 세계풍력기구(GWO) 국제인증을 획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기술교육(BTT) 훈련시설은 전국 최초로 구축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교육훈련기자재 구축이 완료되면 풍력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기업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하고 국제 기준의 유지보수 전문 인력을 양성해 국내 풍력산업 현장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북도를 넘어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획기적인 발걸음을 하게 됐다. 경북의 풍력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준환 기자 kih9@



수협중앙회, 영덕군 산불피해 어업인 현장 지원

수협중앙회는 지난 1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영덕군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어업인들의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수협중앙회는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영덕군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 김광열 영덕군수(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추진

무안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 공공·상업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9억원을 확보했다. 국비를 포함한 총 39억원을 투입해 9개 읍·면 470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안(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신안군

‘청년바다마을 사업’ 최종 선정

전남 신안군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청년바다마을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바다마을’ 사업은 청년들이 귀어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군은 대상 사업지구를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하우리항과 진리항이 있는 임자도로 선정했으며,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촌인구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목포시, ‘이충무공 탄신제’ 거행

이상진 부시장 등 200여명 참석

목포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80주년을 맞아 ‘이충무공 탄신제 480주년 기념행사’를 고하도 모충각에서 28일 엄숙히 거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목포시장 권한대행 이상진 부시장을 비롯해 해군 제3함대사령관, 이충무공 목포지구기념사업회 임원, 도·시의원, 해군 및 해경 관계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충무공의 불멸의 업적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탄신제는 충무공의 영령을 맞이하는 강신 의식을 시작으로, 전통 제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목포시립합창단과 해군 제3함대 군악대의 ‘충무공의 노래’ 합창이 울려 퍼지며 장엄한 분위기 속에 행사의 막을 내렸다.

또한 유달산 이순신 동상 앞에는 추모 화환이 배치되어 시민 누구나 충무공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시민 참여형 공모전... 대상 100만원

포항시는 5월 12일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동빈대교’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동빈대교는 남구 송도동과 북구 향구동을 잇는 총연장 395m, 왕복 4차로 규모의 교량으로, 단절된 도심 남북을 연결하고 교통 흐름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돼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총사업비 784억 원이 투입된 이 교량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항시는 ‘동빈다리’, ‘동빈교’ 등 기존 명칭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교량의 상징성과 대중성을 높이기 위



동빈대교 조감도.

해 시민 참여형 공모전을 기획했다.

응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성·활용성·독창성·대중성을 고려한 이름이면 된다.

공모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대상(1명) 100만 원 ▲우수상(1명) 50만 원 ▲장려상(2명) 각 25만 원 상당의 포항사랑상품권이 수여된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대표 메뉴만으론 부족”… 버거업계, 포트폴리오 다변화

맘스터치 에드워드 리 세프 협업
새 비프버거 출시, 매출 540% ↑

버거킹 와퍼 중심 메뉴구성 탈피
치킨버거 신제품 ‘크리스퍼’ 출시

롯데리아 ‘디저트 맛집’ 전략
‘토네이도’ 요거트 맛 3종 출시



▲토네이도 요거트맛 3종 /롯데GRS
▶에드워드 리 세프가 맘스터치 컬래버 메뉴 ‘에드워드 리 컬렉션 3종’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

햄버거 업계가 대표 메뉴에 안주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화 단계에 접어든 시장 환경 속에서 기존 대표 메뉴만으로는 소비자의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브랜드마다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맘스터치는 지난해 4179억원의 매출과 73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4.7%, 21.8% 증가했다. 매장 수도 2020년 1313개에서 2024년 1416개로 증가했다.

공격적인 출점에 그치지 않고, 메뉴 확

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력 메뉴인 치킨, 치킨버거뿐만 아니라 비프버거, 피자 등 다양한 메뉴 개발에 나선 것.

맘스터치는 2022년 그릴드비프버거 론칭으로 처음으로 비프버거 시장에 진출했으며, 최근에는 넷플릭스 콘텐츠 흑백요리사에서 활약한 에드워드 리 세프와 협업해 새로운 비프버거를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인 비프버거는 일주일 만에 매출을 540% 끌어올리며 성공을 거뒀다.

또한 기존 매장에 ‘숨인숨’ 형태로 피자 판매를 추가하는 전략을 통해 저녁 시간대 매출 보강에도 나서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150여 개 피자매장을 올해 2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버거킹은 비프버거인 ‘와퍼’ 중심의 메뉴 구성을 탈피하기 위해 최근 치킨버거 신제품 ‘크리스퍼’를 출시했다. 크리스퍼는 두툽한 통닭가슴살을 활용해 차별화된 식감을 구현한 제품이다. 회사는 크리스퍼를 단순한 신메뉴로만 보지 않고, 향후 치킨 소비층을 겨냥해 다양한 제품을 추가로 출시, 치킨버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버거킹 관계자는 “크리스퍼는 치킨버거 버전의 ‘와퍼’로, 향후 치킨버거

카테고리 확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고객 접점 확대와 신제품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버거킹 운영사 BKR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79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늘어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4억원으로 60.4% 증가했다. 버거킹은 기존 대도시 상권 위주의 출점 전략에서 벗어나 중소도시까지 진출하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햄버거는 여전히 핵심 제품이지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브랜드 경험과 메뉴 다양화를 통한 차별화가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리아는 햄버거 외 메뉴 강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디저트 맛집’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22년 시작된 ‘롯데단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숨은 디저트 브랜드와 협업, 전국 매장에서 새로운 디저트를 선보이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또 하절기 디저트 라인업도 강화했다.

롯데리아는 대표 디저트 메뉴인 ‘토네이도’에 요거트 맛을 추가한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 토네이도 요거트맛 3종은 최근 요거트 아이스크림 인기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이처럼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계가 메뉴를 다양화하고 공격적인 출점으로 물리적 접점을 넓히고 있지만, 브랜드간 상권 중복으로 인한 카니발리제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식 전문가는 “단순 출점 경쟁과 메뉴 확장을 넘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야 포화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화끈한 매운맛 ‘습김치’ 완판

MZ세대 겨냥 온라인 전용으로 출시
배민B마트·CJ더마켓 초도물량 소진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MZ세대 속성에 맞춰 철저히 기획, 출시된 CJ제일제당 실비김치인 ‘습김치(사진)’가 자발적인 온라인 바이럴을 통해 출시 초반부터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매운맛을 나타내는 소리 ‘습’을 강렬한 색깔의 한글 그래픽으로 표현한 혁신적인 패키지 디자인이 MZ세대를 사로잡으며 자연스럽게 바이럴을 형성, 온라인 상화제가 되고 있는 것. ‘습김치’는 트렌디하고 새로운 것에 빠르게 반응하고 바이럴에 민감한 MZ세대를 타깃으로 지난 1일 온라인 전용으로 출시됐다.

높은 관심과 바이럴 속에 ‘습김치’를 다룬 영상과 숏폼 등도 온라인에 계속 업로드되고 있다. 구독자 209만명의 유



튜브 채널 ‘악동김블루’에서는 ‘실비김치의 화끈한 로고’라는 제목의 숏폼이 3일만에 조회수 150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제품 만족 리뷰를 남기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화제성은 판매 성과로도 나타났다. ‘습김치’는 이달 1일 선론칭한 배민B마트에서 론칭 당일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 CJ제일제당 공식몰 CJ더마켓에서는 판매를 시작한 3일 당일 오전에 준비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 했다. 출시 2~3주차에는 첫 주 대비 일일 판매량이 약 3배 뛰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에 CJ제일제당은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재빨리 생산 물량을 3배 가까이 늘렸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자발적인 바이럴과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은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유통 채널 등 철저한 디지털 환경과 MZ세대에 맞춘 전략이 적중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장,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 환경과 핵심 타겟층에 맞춘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습김치’는 매운맛의 차원이 다른 ‘화끈한’ 매운 실비김치다. 매운 베트남 고춧가루와 국내산 청양 고춧가루의 최적 배합으로 스코빌 지수 기준 일반 비비고 김치의 32배에 달하는 강렬한 매운맛을 낸다.

/신원선 기자

롯데百, 명동 일대 예술로 물들인다

한달간 ‘롯데타운 명동 아트 페스타’

롯데백화점이 이달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도심의 열기’를 주제로 한 ‘롯데타운 명동 아트 페스타’를 진행한다. 29일 밝혔다.

롯데타운 명동 아트페스타는 을지로 입구역부터 롯데호텔 서울 광장, 롯데백화점 본점에 이르는 명동 일대를 예술 콘텐츠로 꾸미는 행사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명동 거리 일대를 예술 작품 전시와 식음료 공간, 체험형 콘텐츠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채울 계획이다. 호텔, 면세점, 한국후지필름 등 여러 롯데 계열사가 함께 참여한다.

먼저, 국내외 아티스트의 예술 작품이 전시된다. 대표적으로 호주 출신 아티스트 브롤가가 이번 행사를 위해 디자인한 ‘스티지’ 캐릭터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에비뉴엘 전관 및 본관에서는 도시의 풍경과 도시인들의 숨겨진 감정들을 조명하는 전시가 진행된다. 에비뉴엘 전관에는 픽셀 아티스트인 주재범 작가의 작품들이, 본관에서는 정그림, 유재연, 강민기, 최연재 4명의 국내 작가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아트 페스타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운영한다. 호텔 광장, 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면세점 등 주요 6개 지점에서 스탬프 존을 운영하고 미션 완료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화센터 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아이와 함께 백화점 곳곳의 전시 공간을 관람하고 예술 활동을 진행하는 ‘빛나는 조각으로 그리는 나’, 아트페스타 관람 후 명동 소공동 일대 도심을 기행하는 ‘아트와 도시가 만나다’ 등이 대표적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이트진로, 이슬톡톡 ‘제로슈거’ 새단장

기존제품 대비 칼로리 64% 줄여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과실탄산주 브랜드 ‘이슬톡톡’을 제로슈거 콘셉트로 새단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이저(Healthy Pleasure) 트렌드를 반영해 시장 내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이슬톡톡은 제로슈거 주질로 재탄생했다. 알코올 도수 3도는 유지하면서 당류를 사용하지 않아 기존 제품 대비 칼로리를 64% 줄였다.

이슬톡톡 복숭아 기준 100ml 당 18kcal의 칼로리로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주질을 완성시켰다. 패키지는 기존 이슬톡톡 캐릭터와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제로 슈거(Zero Sugar)’를 표기해 가시성을 높였다.

리뉴얼 제품은 5월부터 전국 가정 채널에 순차적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리뉴얼을 기념하여 과일가게 콘셉트의 매대와 홍보물을 운영하며 재미있는 연출로 소비자들을 만난다. 또, 이슬톡톡 전용잔 증정 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GS리테일 ‘와인25플러스’ 누적 주문액 1500억

GS리테일이 주류 스마트 오더 플랫폼 ‘와인25플러스’ 누적 주문액이 이달 말 1500억원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제휴 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 분석이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제휴 시작 시점인 지난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와인25플러스 주문 건수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4%, 99.4% 상승했다.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한 2030세대가 신규 고객으로 대거 유입된 데에 따른 효과라는 게 GS리테일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갈아만든배·비락식혜 등 가격 올린다

유통업계, 음료가격 인상

올해 들어 원재료 가격 폭등과 운임비 증가 등을 이유로 생활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음료를 비롯해 대중교통 요금, 대학 등록금까지 줄줄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해태에이치티비(해태htb)는 ‘갈아만든배’ 340ml 제품의 편의점 가격을 1600원에서 1700원으로, 500ml 제품은 2200원에서 23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포도봉봉캔’, ‘코코팜포도’ 340ml

제품도 100원 오른 17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팔도는 ‘비락식혜’ 238ml 제품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500ml 제품은 2000원에서 2200원으로 가격을 조정한다. 코카콜라음료는 스프라이트 500ml를 비롯해 한타, 파워에이드, 토레타 등 주요 음료 가격을 일괄적으로 100원씩 인상한다.

남양유업은 ‘17차’ 500ml 제품 가격을 2000원에서 2200원으로, 매일유업은 ‘허쉬초코’ 딸기·바나나 190ml 제품을 14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200원씩 올린다.

/신원선 기자

LG생건, 美 법인 유상증자 참여 현지 유통 등 브랜드 경쟁력 강화

LG H&H USA 지분 100% 보유
생활용품 등 소비자 직접 확대
“글로벌 유통시장 유연하게 대응”

LG생활건강이 ‘K뷰티’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북미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미국 법인 지분율을 높이고, 현지 유통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2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LG생활건강은 미국법인 LG H&H USA 유상증자에 참여를 결정했다. 해당 유상증자 규모는 약 1865억원 수준으로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LG생활건강은 LG H&H USA 주식 130만주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을 100%를 보유하게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오는 5월 15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에서 약 1000억원은 LG H&H USA에, 나머지 약 865억원은 LG H&H USA 자회사더에이본컴퍼니에 투입될 계획이다. 두 회사 모두 미국 뉴욕에 위치하고 있으며,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LG H&H USA는 지난 2015년 글로벌 대형 뷰티 편집숍인 세포라에 LG생



더페이스팩, 빌리프, CNP, 유시몰(시계방향으로) 등 LG생활건강의 대표 뷰티 브랜드들이 아마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LG생활건강.

활건강의 허브화장품 브랜드 ‘빌리프’를 입점시키는 등 미국 현지 유통 시장을 공략해 왔다. 2020년에는 구강관리 브랜드 ‘리치’ 등도 선보이며 사업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더에이본컴퍼니는 직접 판매 체제를 구축하는 등 유통망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LG생활건강 대표 제품을 판매원에게 소개하고,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형태다. 판매원이 온라인 주문을 하면 물류 센터에서 각 판매

원에게 제품을 배송한다.

LG생활건강은 현재 북미 사업에서 증가세를 기록하며 4분기 만에 실적 반등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북미 매출은 12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늘었다.

지난해 매분기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던 북미 지역이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앞서 LG생활건강의 북미 지역 연간 매출은 2023년 6038억원에서 2024년 5216억원으로 감소했다.

LG생활건강은 현지 시장의 최신 동향에 발맞춰 포트폴리오를 확대한 것이 브랜드 경쟁력을 높였다는 분석을 내놨다. 주요 브랜드인 더페이스샵, CNP 등의 판매 호조가 주효했다.

이와 함께 LG생활건강은 북미 시장에서 화장품 브랜드뿐 아니라 생활용품 브랜드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급 구강관리 브랜드 유시몰, 두피 전용 브랜드 닥터그루트 등 브랜드 다변화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LG생활건강 측은 관계자는 “차별적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현지 맞춤형 방안으로 글로벌 유통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유한양행, ‘YH32367’ 등 항암제 연구 순항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차세대 항암제 파이프라인 임상 성과

유한양행이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글로벌 항암제 시장을 겨냥한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 28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5)에서 ‘YH32367’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YH32367은 담도암, 위암 등을 적응증으로 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이다. 유한양행은 기존 항암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발표는 HER2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에서 YH32367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항종양 활성 등을 평가하는 최초의 인체 임상 결과다. 용량 증량파트와 용량 확장파트로 나눠 진행됐다.

임상시험 결과, 모든 용량에서 용량제한 독성(DLT) 반응이 없었으며 최대 내약용량(MTD)에 도달하지 않았다. 치료 관련 이상반응은 총 32명 환자 중 10명(31%)에서 보고됐고, 주로 발열과 오한으로 대부분 1~2 등급의 경미한 수준이었다.

측정 가능한 병변이 있는 환자 31명 중 7명이 부분반응을 보였고, 10명은 안정질환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항암제 치료 효과를 수치로 확인하는 핵심 지표인 객관적 반응률(ORR)은 23%로, 질병 조절률(DCR)은 5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열홍 유한양행 R&D 총괄 사장은 “YH32367의 우수한 안전성과 고무적인 항종양 활성을 입증했다”며 “현재 2개 후보 용량을 선정하여 HER2 양성 담도암과 다양한 고형암 환자 대상으로 한국, 호주, 미국에서 용량 확장 파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후속 연구결과도 공유했다. 특히 렉라자 저항성 기전을 평가하고,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변이로 인한 암에 대한 렉라자 치료 효과를 다시 한번 규명했다.

이밖에도 유한양행은 현재 차세대 항암제 파이프라인으로 YH32364 등을 확보했다. YH32364의 경우, 혁신신약 후보물질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와 면역관문 단백질 4-1BB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 항체 기전을 갖췄다.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YH32364’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시험대상자를 모집해 사람에게 처음으로 투여하는 임상 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팔도-인도푸드 그룹, 글로벌 시장 공략 맞손

팔도 제품 판매 활성화 업무협약

종합식품기업 팔도가 인도네시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한다.

팔도는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최대 식품·유통기업 인도푸드 그룹과 ‘팔도 제품 판매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도마르코는 인도네시아 최대 식품기업 인도푸드 그룹의 주요 유통 계열사다. 아시아,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양사는 공동 판촉 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취급 품목도 확대한다.

특히 이번 계약을 계기로 팔도는 인도푸드의 유통계열사 인도마르코의 유



팔도는 지난 28일 인도푸드 그룹과 ‘팔도 제품 판매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권성균 팔도 대표이사(왼쪽), Joedianto Soejonopoetro 인도마르코 대표이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팔도

통망을 활용해 ‘귀여운 내친구 뽀로로(이하 뽀로로 음료)’를 독점 공급한다.

/신원선 기자

한식 대표 HMR ‘양반’… 글로벌 브랜드 새 도약

동원F&B

김, 죽, 찌개 등 다양한 제품 선택
‘한식 맛의 오리지널’ 통합 마케팅

동원F&B의 ‘양반’은 1986년 국내 최초 한식 가정간편식(HMR) 브랜드로 탄생해 꾸준히 재료와 맛에 집중하며 전통과 현대 트렌드를 아우르는 한식 문화를 이끌어왔다.

‘한식 맛의 오리지널’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한식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맛과 편리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철학으로 삼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출시 40주년을 맞은 ‘양반김’과 30여 년 동안 국민 식탁을 지켜온 ‘양반죽’이 있으며, 밥, 국탕, 찌개, 떡, 김치, 적전류, 전통음료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



양반 브랜드 제품

/동원F&B

도록 제품군을 확장해왔다.

40년 전통의 양반은 올해 새로운 슬로건 ‘한식 맛의 오리지널. 양반’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브랜드 통합 마케팅을 전개한다. ‘한식에 답하다, 양반 FE STA’라는 소비자 이벤트를 통해 여행

상품권, 호텔 숙박권, 한우 선물세트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힌다. 또한 김, 죽, 밥, 떡, 국물요리 등 양반이 사랑하는 한식의 맛을 담은 광고 영상을 제작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선보이고, 양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다양한 브랜드 콜라보와 ESG 활동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확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동원F&B의 양반은 ‘2025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상’ 한식 HMR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양반은 이번 수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식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증명했으며, 앞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글로벌 No.1 한식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아쏘시오그룹, 분기 실적 好好… 계열사 성장세 ‘뚜렷’

동아쏘시오홀딩스 영업익 30% 경증

동아쏘시오그룹의 각 계열사들이 외형 성장을 이뤘다며 그룹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올해 1분기 매출은 3284억원, 영업이익은 20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7%, 30.9%

증가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에스티젠바이오가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그룹 내 신성장동력으로 입지를 다졌다.

에스티젠바이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8% 커져 191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6.1% 급증해 19억

원이다.

핵심 계열사인 헬스케어 전문회사 동아제약도 사업 다각화로 기업 영향력을 넓히며 성장세를 지속했다.

동아제약매출은 17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늘었고, 영업이익은 1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줄었다.

/이청하 기자

를 앞세워 설립된 K뷰티 브랜드로, 설립 5년 만에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선 비상장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이에 두 배 이상인 26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배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28.2%에 달했다.

향후 CJ온스타일은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및 TV 라이브 등을 기반으로 비나우 등 K뷰티 글로벌 판로 확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품 공동 기획과 개발 등으로 비나우 신상품 최초 론칭 채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롯데단길 in 진해 중앙시장

쥬포튀김

은혜분식

감칠맛이 폭발한다!
겉은 바삭, 속은 쫄깃!

쥬포 튀김



LOTTERIA × 동반성장위원회 지역사회와 함께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원료 특성 상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캐러멜화 반응으로 인해 제품 표면이 부분적으로 색상이 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아, 34번째 누계 4000대 판매왕 탄생

기아의 34번째 누계 판매 4000대 판매왕이 탄생했다. 기아는 목포지점 서상배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누계 판매 대수 4000대를 달성해 ‘그랜드 마스터’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그랜드 마스터는 기아에서 누계 판매 4000대를 달성한 우수 오토컨설턴트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다. /기아



지엠한마음재단, 강화도서 농촌일손 돕기 봉사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이하 지엠한마음재단) 사회공헌 활동 범위를 강화도까지 확대하며 지역사회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엠한마음재단은 지난 28일 지역사회 농가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 ‘강화로 오시거’를 진행했다. 한국GM 임직원 80여명은 인천 강화군 송해면 신당리 지역을 방문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이한 농가를 적극 지원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



오비맥주, 자사 생산공장 3곳서 ‘안전주간’ 운영

오비맥주가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4월 28일)’을 맞아 30일까지 자사 3개 생산공장에서 ‘안전주간(Safety Week)’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매년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기점으로 충북 청주와 전라 광주, 경기 이천에 위치한 3개 생산공장에서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비맥주



롯데월드푸드, 정선군에 ‘13호 해피홈’ 건설

롯데월드푸드가 13번째 빼빼로 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건립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해피홈’이 강원도 정선군에 지어진다. 롯데월드푸드는 전날 세이브더칠드런, 정선군과 함께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왼쪽부터) 위세랑 롯데월드푸드 커뮤니케이션 부문장, 최승준 정선군수,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월드푸드



교원그룹, 아이들에 환경보호 중요성 알리

교원그룹이 어린이 환경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월스 아이클린 캠페인’을 펼쳤다. 29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선양유치원과 은평구 성아유치원에서 진행한 캠페인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교원그룹

포스코, 광양시민 위한 산업·문화 복합공간 조성

‘Park1538 광양’ 개장

홍보관·교육관으로 구성
미술품 33점 엄선해 전시
市와 관광지 연계 협력 예정

철과 빛의 도시인 전남 광양이 고 품격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4일 ‘Park1538 광양’을 개장하고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산업·문화 복합 공간 조성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Park1538’은 4년 전 포항에서 첫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을 포용하는 공간인 ‘Park’와 철의 용융점인 섭씨 ‘1538도’를 빚어 만든 ‘Park 1538’은 철이 다른 무엇으로 탄생하기 직전의 아름다운 순간과 포스코인의 열정을 뜻한다.

‘Park1538 광양’은 홍보관과 교육관으로 구성됐으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홍보관 내에 ‘포스코미술관 광양’을 함께 선보였다. 포스코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Park



‘Park1538광양’ 홍보관 외관.

/포스코

1538광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체철소를 벗어나 금호대교 인근 수변에 입지를 정했다.

건물 내외관은 지역명인 광양에서 착안해 ‘빛의 물결’로 디자인했다. ‘Park1538광양’에는 포스코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등의 강재가 사용됐다. 특히 홍보관 외관은 녹이 슬지 않는 포스맥의 실용성과 곡선미를 살린 파도치는 물결 형상으로 한 차원 높은 기술력을 구현했

다. 포스코 홍보관은 영상관, 역사·제품 전시존 등 총 9개의 체험형 전시 및 영상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홍보관에는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10m 높이의 대형 웰컴 월, 이머시브 영상관, 비전 영상관 등 실감형 미디어아트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 전시존에서는 에너지, 조선, 건설 등 각 산업과 실생활 가전 등에 적용된 강재를 직접 보고 만질

송병준 “벤처·스타트업 육성 최우선”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국가 미래 견인하도록 해야
벤처 생태계 복원 등 추진과제 제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사진)이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뒤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게임빌을 설립한 후 모바일 게임사 컴투스를 인수, 현재 이사회 의장 등을 맡고 있는 송 회장은 “글로벌 벤처 생태계를 살펴보면 생태계 고도화와 혁신 기업의 성장은 벤처투자 등 금융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2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5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공적 연기금의 벤처 투자 허용 및 활성화, 회수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등 벤처생태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벤처기업들이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역할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판을 바꿔야 한다. 이젠 벤처기업들이 선발투수가 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중 중점 추진 과제로 ▲벤처투자시장 50조 확대 등 ‘벤처 생태계 복원’ ▲대통령직속 규제혁신기구 설치 등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의 ‘인공지능 전환(AI)’ 생태계 플랫폼’ 구축 ▲기업가정신센터 설립 등 ‘기업가정신 확산’ ▲외연확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제1단계’ 입지 강화를 내세웠다.

아울러 벤처협회는 대선 시즌을 맞아 ▲혁신산업

금융유동성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규제혁신 기준국가 도입을 ‘3대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송 회장은 “글로벌 벤처 생태계를 살펴보면 생태계 고도화와 혁신 기업의 성장은 벤처투자 등 금융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2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5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공적 연기금의 벤처 투자 허용 및 활성화, 회수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등 벤처생태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협회는 혁신생태계 ‘제1단계’ 입지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 회장은 “함께 하는 힘을 믿는다”며 “협회의 외연확장을 위해 혁신을 추구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모든 기업들에게 협회의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그 뜻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에너지, 전국 주유소 청결도 높인다

‘클린데이’ 캠페인 진행

SK에너지가 전국 주유소 현장의 청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클린데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SK에너지는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 간 전국 SK주유소에서 ‘항기로운 봄, 기름때 날려 봄’ 슬로건으로 클린데이 캠페인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전국 SK주유소 운영

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청결 미션을 완료한 뒤 사진을 찍어 응모하면 된다. 캠페인이 끝나면 120개 주유소를 선정해 10만원 상당의 배달앱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소 미션은 주유기 밑판 닦기, 주유건과 노즐집 닦기, 바닥에 흘린 기름 닦기 등이다. 이에 따라 SK주유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한층 청결한 주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차현정 기자

삼성복지재단, 전국 어린이집 원장 특강

힐링·배움의 시간 제공

삼성복지재단이 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경북 영덕 삼성인력개발원 명상센터에서 ‘2025 전국 어린이집 원장 특강 C&I DAY’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을 격려하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과 성장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한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명상과 마음근력’을 주제로, 명상과 뇌과학, 정신의학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힐링과 배움의 시간을 제공한다.

김주환 연세대 교수는 ‘마음근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마음근력의 의미와 현대인에게 마음근력이 왜 필요한지를 뇌과학을 기반으로 소개한다. 또 실습을 통해 일상 속 명상 실천법을 전한다. 채정호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행복한 삶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명상이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명상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건강관리 방법을 강연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인사

◆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고위공무원 승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김현재

부음

▲정순홍 님 별세, 이희빈(전북도민일보 기자)씨 외조모상=28일 오후 8시30

분, 원광대학교병원 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5월 1일 오전 7시30분, 장지 익산 왕궁선영. 063-855-1734

▲조규명씨 별세, 조진화(넷마블 사업담당)씨 부친상=29일, 서울 구로구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5월1일 오전 7시40분. 02-857-0444

▲박인형씨 별세, 전경남(프로축구 성남 FC 감독)씨 모친상=29일, 충북 청주시 하나노인전문병원장례식장 3층 특A실, 발인 5월1일 오전 6시, 043-270-8400

www.dseshop.co.kr



“샴푸 3분만에 염색 끝”

힘든 염색은 이제 그만, 감기만 하면 염색 끝 -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하루 3분, 간편하게 감기만 하세요~



샴푸하듯 간편하게, 초스피드 3분 염색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 3분 염색으로 빠르게** 30분 걸리는 길고 지루한 염색시간, 단 3분이면 OK 눈시림, 두피자극, 냄새 걱정없이 빠르고 편안한 초간단 새치커버
- 유해성분 없는 건강한 새치케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순한 염색, 피부자극 걱정없이 염색후에도 보들보들한 머릿결 유지
- 식물 유래성분으로 건강하게** 검은깨, 흑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랙푸드 4종, 백나무잎 특허성분에 9가지 비타 과일 추출물로 생기있는 머릿결



■ 특별 할인판매 • 색상: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선택) • 제품 구성: 26회 사용분 + 전용장갑 2개 • 판매가: ₩19,933원X3(3개월 카드무이자)

상담·구입 문의 **080·854·0082**

준비되지 않은 통합돌봄의 현주소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내년 3월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 돌봄의 책임자로서 역할하도록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노력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이 법과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해서 7개 학회와 참여연대가 성명서를 각각 발표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돌봄은 ‘모두’를 위한 권리로써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돌봄은 특정 연령층이나 질환을 가진 집단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동, 청년, 중장년층, 정신장애인 아동과 최근에 증가하

는 고립과 은둔한 대상자까지 생애 전주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수요가 존재한다. 이처럼 제한된 대상만을 고려한다면, 결국 사각지대를 만들 뿐이다.

둘째,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지자체는 돌봄의 책임자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히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노인 돌봄의 육구사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육구사정을 통해서 노인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제대로 된 돌봄 계획서를 세울 수 있느냐!”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걱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통합판정 도구는 지역기반 돌봄을 위한 사정도구가 아니라 당초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입소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다. 그런데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갑자기 지역 돌봄에 사용하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셋째, 이 법률은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 업무도 대거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자체가 지

역 돌봄의 콘트를 타워로서 역할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핵심 업무를 전문기관에 떠맡기고 지역주민의 돌봄은 형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사업 초기부터 건보를 노인 사정의 단독주체로 설정한 것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업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등 의존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넷째, 이 법이 시행되려면 지자체의 추가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나?”고 아우성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의 다양한 업무와의 재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차선책도 있는데 부서간의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돌봄은 우리 삶의 방과제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전부처가 함께 이 법률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새로운 정부의 미래와 발맞추어서 미봉책이 아니라 과감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국립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스피 5000, ‘구호’ 아닌 ‘결과’가 되도록



허 정 연

〈자본시장부〉

대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 있다. 바로 ‘코스피 5000’이다.

과거에도 주가지수 목표를 외쳤던 정치인들은 많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를 약속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국내 경제 구조적 취약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시장 신뢰 붕괴까지 겹치며 공약은 힘없이 무너졌다.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셈법으로는 현재 지수 대비 2배 가까운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 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두 배 성장해야 가능한 일이다. 상장 기업의 실적

개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글로벌 자본 유치라는 단단한 토대 없이는 이루기 힘든 ‘이상’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가 주최한 자본시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 리서치센터장은 “이 후보가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은 받았지만, 그 자리 자체가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고 정치인의 의지를 쇼잉(보여주기)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시장의 취약한 체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주가 조작, 불공정 거래, 테마

주 광풍 등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투자자 보호를 내세운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단순한 표심 공략을 넘어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답해야 할 때다. 상법 개정 역시 지배주주 중심의 왜곡된 이사회를 바로잡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주축으로 떠오른 것도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다. 10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이자 유권자들은 이제 단순한 소수 참여자가 아니라 시장 방향을 좌우하는 큰 축이 됐다. 그렇기에 자본시장 공약은 과거처럼 단순한 ‘구호’로 소비되면 안 된다. ‘코스피 목표치’는 대선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한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30일 (음 4월 3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조직의 일에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잘 살펴라. 48년생 이직은 한 번 더 생각하자. 60년생 속 보이는 행동 자제. 72년생 과거에 뿌린 씨앗이 좋은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 84년생 신경성 질병으로 고생하니 건강을 생각.



소

37년생 직장이나 밖에서 이성에게 한눈팔지 않도록. 49년생 생각 없이 한 말이 원수가 될 수. 61년생 동료의 도움으로 어렵던 일 해결. 73년생 가스등 화재 조심할 것. 85년생 지나친 활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외출을 삼가라.



호랑이

38년생 새로운 계획으로 조직에 재물이 들어온다. 50년생 신용으로 주변을 개선하라. 62년생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74년생 일이 계속 이어지니 자긍심도 높여준다. 86년생 지혜를 나눠 공유하니 주변의 화합이 함께 한다.



토끼

39년생 회를 내면 나만 손해이다. 51년생 능력이 안 되면 제발 성실하게라도 해라. 63년생 이성과의 불화의 해결책은 헤어지는 것뿐. 75년생 열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다. 87년생 너무 자부심이 지나치니 혼자 피곤하다.



양

40년생 미래의 일은 닦치면 해결해나가도록. 52년생 집나간다고 행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이혼은 신중. 64년생 변명보다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자. 76년생 오후에 음주는 주의. 88년생 병의 원인은 마음에서 시작된 듯.



뱀

41년생 배우자를 의심하여 불화가 이어진다. 53년생 아침부터 행운이 찾아온다. 65년생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 되지 않겠는가. 77년생 이웃과 한 가지 이익을 두고 다툰다. 89년생 고집으로 인하여 일을 그르치니 신중해야만.



말

42년생 시간을 쪼개 보니 일이 산더미. 54년생 동료와의 불화가 있으니 양보하라. 66년생 이득을 위해 우기지 말고 질서를 존중. 78년생 재물이 목표였으나 나 혼자 남아 허망하다. 90년생 즐거움으로 인해 다소 과한 지출이 예상된다.



고양이

43년생 꼼꼼함이 문제해결에 도움 된다. 55년생 적극적인 행동과 운세가 행운을. 67년생 사고가 있으니 일찍 귀가하는 것이 상책. 79년생 삼재팔난이니 초하루기도를 해보는 것도 방법. 91년생 남의 일에 참견하려거든 올바르게 하라.



원숭이

44년생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56년생 친구 따라가다 손해를 보니 경거망동 주의. 68년생 늦은 외출은 자제. 80년생 다단계에서 만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92년생 서두르지 말고 내부 문제를 들여다보아만.



닭

45년생 방심하지 말고 급할수록 천천히. 57년생 현재의 환경과 동료들을 소중히 여겨야. 69년생 등을 돌린 이성에게 연연하지 않도록. 81년생 기본전환이 필요하니 산행이라도. 93년생 대표라도 현실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돼지

46년생 성실한 노력이 승부수다. 58년생 부동산에서 소식이 온다. 70년생 조금은 힘에 부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82년생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을 개선해야 외면 받지 않는다. 94년생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말을 듣다가 큰코다친다.



돼지

47년생 새로운 변화가 오지만 쓸데없는 참견은 미움을 산다. 59년생 고만하던 일이 해결된다. 71년생 음주는 하지 않아야. 83년생 삼재이니 자식 문제는 기도 발원으로 풀어가 보라. 95년생 투자에서 즉흥적인 판단은 바로 손실로 이어진다.



김상회의四季

인생의 만능키

만능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AI 시대가 개막되었다. 두려움도 만만치 않다. 전 세계적 현상만 보더라도 인간이 발명해 낸 산업기계가 인간들의 노동시장을 대체해왔으며 이는 고용의 불안과 여러 사회문제를 동반해 왔다.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것이다. 인간 실존의 의미가 무색해지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나 기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당연한 질서로 되어 가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던 데카르트의 말이 무색해지며 인간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가진 AI가 철학적 사유와 판단까지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근 십 년 전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도 충격이 컸었고 불안의식이 깊긴 했지만, 지금의 AI에 대한 불안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던 성실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과거 시대에는 지금의 AI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주역(周易)이 아니었을까 싶다. 주역이야말로 자연과 인간, 더 나아가 우주의 생성원리와 변화하고 작용하는 이치를 음양 6호로부터 발전시킨 64괘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사면 인간사, 자연의 순환이치 등 그 어느 곳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개인사는 물론 전쟁의 시작일과 승패 그리고 나라의 운명은 물론 치국의 이치까지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 없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천지자연의 물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왕의 학문이라고까지 불렀다. 세상이사를 꿰뚫는 일종의 만능열쇠였다. 시간 앞에서 유한의 생명을 가진 존재,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로서, 생로병사를 뛰어넘기는 힘들다. 그러기에 더더욱 예측학문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향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6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6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3650

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6	9	1	2	3	4	5	6	7
7	1	2	3	4	5	6	7	8
9	6	7	8	9	1	2	3	4
8	9	1	2	3	4	5	6	7
9	9	7	8	1	2	3	4	5
8	1	9	2	3	4	5	6	7
2	3	4	5	6	7	8	9	1

대학 10곳 중 7곳 등록금 올렸다 연평균 27만7000원, 4.1% 인상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3곳 중 136곳 인상, 57곳 동결
학생 1인당 연평균 711만원 집계

올해 전국 일반대 및 교육대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대학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4% 넘게 인상되면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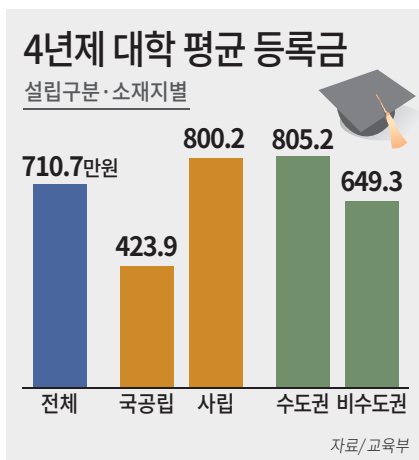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를 제외한 전국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다.

2025학년도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70.5%에 해당하는 136개교가 인상했고, 29.5%인 57개교는 동결했다.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10만65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등록금 682만9500원과 비교하면 27만7000원(4.1%) 오른 수치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을 도입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고등교육법상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올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최근 3개년의 물가상승률이 3.66%로 높아지면서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은 5.49%를 기록했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하지만, 올해는 등록금을 법정상한에 맞춰 올리면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설립 유형별 등록금은 사립은 800만 2400원, 국·공립은 423만8900원이었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805만1700원, 비수도권은 649만2500원으로 집계돼 수도권 대학의 학생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평균 등록금은 ▲의학(1억16만9700원) ▲예체능(814만4000원) ▲공학(754만4000원) ▲자연과학(713만8600원) ▲인문사회(627만26000원) 순이다.

전문대학도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국 전문대학 129개교 중 94개교(72.9%)가 인상했고, 34개교(27.1%)는 동결, 1개교(0.8%)는 인하했다.

전문대학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45만500원으로 전년(619만1900원) 대비 25만8600원(4.2%)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5846억원 증액하는 등 전년대비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학자금 대출을 1.7% 저금리로 지속 유지해 등록금 부담을 지속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수도권 지하철요금 1400원→1550원 인상

서울교통공사, 6월 28일 예상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6월 말부터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지하철 운임 조정안을 확정했다.

운임 조정안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50원 인상돼 1400원에서 1550원이 된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수도권 지하철 1회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현재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모두 1500원이지만, 조정안에 따라 16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조조할인액도 조정된다. 교통카드를 이용해 첫 차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 탑승할 경우 요금의 최대 20%까지 할인되는 조조할인은 ▲일반 요금 1240원(현행 1120원) ▲청소년 720원(640원) ▲어린이 440원(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6월 말부터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

인상 시기는 6월 28일이 유력하다. 다만, 시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도시철도과 관계자는 “2년 전 인상안을 발표했지만 대내외 사정 상 미뤄졌던 것으로, 아직 인상 일자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시스템 개선 등 실무적 준비를 마치고 6월 28일 내외로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인상안은 기존 거론됐던 대로 진행되었지만,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내달 3일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어린이날 맞이 3일간 진행

파주출판도시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축제를 준비했다. ‘제23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가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파주출판도시 일대에서 열린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무대에서는 책을 소재로 한 인형극과 낭독극 등 어린이 맞춤 공연이 펼쳐진다. 출판사들이 준비한 작가와의 만남, 공동연수 같은 강연 프로그램도 열려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직접 작가들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그림책 공개 토론회와 그림책 공모전 시상식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체험 부스도 풍성하다. 그림책 작가와 함께 간단한 놀이를 즐기는 ‘그림책 작가 테이블’, 41개 출판사와 서점이 운영하는 ‘북마켓’에서는 다양한 어린이책을 직접 살펴보고 출판 관계자들과 대화할 수 있다. 이밖에 출판사, 도서관, 동네서점 등이 운영하는 ‘오픈하우스’에서는 체험·전시·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파주청소년재단, 교하도서관, 국립한글박물관, 파주시동보호전문기관, 파주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들도 협력해 다양한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캠페인존’을 운영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성북 장위 등 11곳 신통재개발 후보 선정

서울시, 환경개선 시급 등 종합 고려
상반기 용역준비, 본격적 착수 예정

서울시는 28일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08곳이 됐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 주변과의 연계 개발 필요성,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을 이번 후보지로 선정했다.

성북구장위동 219-90일대(장위13-1)와 장위동 224-12일대(장위13-2) 2곳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었지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해 긍정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성북구 정릉동 710-81일대(정릉2)는 몇 번에 걸쳐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었으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보정계수 반영 등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일대(법원단지1)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반지하주

택 비율이 높은 노후 주택지로 꼽히고, 관악구 신림동 119-1일대도 일명 고시촌 지역으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점도율이 낮은 곳이다.

양천구 신정4동 922일대는 신정역 및 오목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저층주거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돼 후보지로 선정됐다.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신정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 독산2동 380일대(독산동B)는 독산로(20m)에 인접한 노후밀집지역으로, 특히 반지하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지난 몇 차례 걸쳐 후보지 미선정됐으나, 구역계 조정을 통해 교통계획 등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실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등포구 신길동 3922일대(신평역)는 신평역 및 보라매역 인근의 과거 침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안전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은평구 응암동 675일대는 응암2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새철역과 백련산 중간에 위치하고 가좌로에 접해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나,

인근 초등학교에 인접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용산구 청파동1가 97-35일대는 숙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경사지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이다. 지역 일대가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으로서 주변에는 이미 청파1구역 및 청파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용역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돼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마진 양보해라” 아마존, 공급업체에 가격 인하 압박
▲ 독자기 총리 메르츠, 첫 내각 인선 발표…보수·안보·경제 역점 /사진 뉴스시스

▲ “中 화웨이 칩 개발, 엔비디아 사업에 영향 없을 듯”
▲ 中왕이 “타협은 괴롭힘만 늘려”…美 맞서 단결 촉구

▲ EU, 트럼프 ‘공해 광물개발’ 행정명령에 “국제 협약 우회…심히 유감”
▲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에 5년 휴전’ 하마스 제안 거절



버거업계
메뉴개발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Life

LG생활건강
美 법인 자금투입
사업 확대 박차



“10시간 고통에서 자유를… 투석환자 일상 되찾아줄 ‘혁신’”

속깊은 人터뷰

싱가포르 헬스케어 스타트업 비 반 스

신장 투석은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몸에 쌓이는 노폐물과 독소 등을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치료 방법이다. 신장 이식이 어려운 말기 신장 질환 환자에게엔 유일한 희망이지만, 가혹한 치료법이기도 하다.

병원에서 진행하는 혈액투석의 경우, 환자들은 최소 주 3회 병원을 찾아 하루 4~5시간 투석을 받아야 한다. 격일로 병원을 오가며 하루 반나절을 꼼짝없이 붙들려 있는 셈이다. 집에서 받는 복막투석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의료기관을 오가지 않을 뿐, 매일(주 7회) 하루 10~12시간 기계와 연결해 투석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장 투석 환자에게엔 집이나 병원을 벗어나는 장거리 여행은 꿈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장 질환으로 인한 투석 환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신장 투석 환자는 4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0년보다 2.4배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 가운데 80%는 병원에서 진행하는 혈액투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싱가포르 헬스케어 스타트업 ‘비반스(Vivance)’는 일찌감치 이러한 문제들에 주목했다. 왜 많은 환자들이 편안한 집을 두고 굳이 비용이 비싼 클리닉(병원)을 찾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모든 전자 기기가 혁신을 거듭해 온 지난 수십 년간, 신장 투석을 위한 의료 기기는 첨단 기술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전 세계 환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치료법에 의존해 삶의 질은 포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지켜봤다.

싱가포르 투아스(Tuas) 지역에 위치한 비반스 본사에서 만난 수레샤 벵카타라야(Suresha Venkataraya) 대표(CEO)는 “비반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혁신적인 가정용 투석장치를 개발하게 됐다”며 “환자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줌과 동시에 의료 시스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현행 치료 시스템의 문제는 뭔가.

“말기 신부전 환자 가운데 병원을 찾는 투석 환자 비중은 88%에 이른다. 가정 투석에 비해 치료비용도 훨씬 비싸고 병원을 오가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함도 커진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의료시스템의 재정 부담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평균 투석 지출액이 9만 달러(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 가정 투석을 늘리면 되지 않나.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가정 투석을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병원 내 투석이 줄고 가정 치료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 가정 내 복막투석은 365일, 하루 최소 10시간이 소요된다. 한번 치료를 하는 동안 10~12리터의 용액을 써야 한다. 이 용액은 대체로 한 달에 한번 배달되기 때



싱가포르 투아스(Tuas) 지역에 위치한 비반스 본사에서 수레샤 벵카타라야(Suresha Venkataraya) 대표가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번거롭고, 긴 혈액투석 문제에 주목 가정용 투석장치 ‘비바컴포트’ 개발

투석용액 90%, 수돗물로 생성 가능 자외선 소독기로 감염 위험도 낮춰 이동형 ‘비바컴팩트’로 여행길 열려

가정투석 수요 증가… 시장 잠재력 커 미국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국가 의료재정 부담도 낮출 수 있어

문에 가정에는 최대 400kg에 달하는 용액을 저장해둘 공간이 필요하다. 침대 옆에는 15~20kg 크기의 복막투석 장비를 놓을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투석을 하기 때문에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 10시간 넘게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함, 복막염 등 감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반스는 환자들을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 투석’으로 이끄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비바컴포트’ ‘비바컴팩트’ ‘비바커넥트’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바컴포트는 세계 최초로 기존 문제점들을 없앤, 가정용 투석장치다. 비반스 사무실에서 마주한 비바컴포트는 허리 정도의 높이에 5kg 가량의, 이동이 간편한 기기였다.

비바컴팩트는 한층 더 혁신을 이룬, 이동이 가능한 복막투석 기기다. 어깨에 직접 매어보니 3kg 내외로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든 투석을 받을 수 있어 말기 신장 질환 환자들도 장거리 여행이 가능한 세상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비바커넥트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 의료진에 전송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 비바컴포트는 뭐가 다른가.

“비바컴포트는 투석 액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투석 기기다. 기존 가정용 투석 기기가 10~12리터의 용액이 필요했다면 비바컴포트는 1리터의 용액만 있으면 나머지는 수돗물을 활용해 용액을 만들어 생성한다. 소모품의 90%가 줄어드는 혁신이다. 비용이 저렴한 것은 물론, 플라스틱 폐기물과 물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감염 위험도 획기적으로 낮췄다. 투석 용액이 일단 복막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투석이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들은 기기에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현재 가정 투석 환자들이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연결관을 빼고 다시 연결할 때의 감염 위험 때문이다. 비바컴포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자외선(UV) 소독기를 별도로 제공한다. 언제 어디서든 소독을 할 수 있어, 투석이 되는 동안 외식, 쇼핑도 가능해진다. 비바커넥트를 통해 감염을 실시간 확인하고, 감염 시 조기에 감지해 병원에 바

로 연결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 비바컴팩트의 경쟁력은 뭔가.

“비바컴팩트는 환자들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는 더욱 획기적인 제품이다. 이 투석 기기는 특허 받은 ‘흡착제’ 기술을 사용, 복막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오염된 투석 액을 다시 깨끗한 용액으로 실시간 재생한다. 이 때문에 1회 3리터의 용액만으로도 어디서든 복막 투석이 가능해진다. 기기는 3kg 가량의 작은 크기로 어깨에 간편히 메고 이동할 수 있다. 비바컴팩트가 있다면 투석 환자들의 장거리 여행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 제품 상용화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나.

“가장 먼저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제품은 비바컴포트다. 이제까지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고 고무적인 결과를 보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위한 최종 임상은 2026년 초로 예정돼 있으며, 2027년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다. 비바컴팩트의 경우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두 차례의 인체 임상실험을 통해 우수한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했고, 환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FDA 승인을 위한 3상 임상 시험이 2027년 계획되어 있다.”

비바컴포트는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정 내 복막투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 신흥시장의 경우 채택 치료 중심 정책의 도입이 가속화 되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한국 시장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국내 투석이 필요한 신장 질환 환자 수는 현재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비반스의 진출은 한국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 전망이다.

- 시장 잠재력은 얼마나 있다고 보나.

“앞으로 당뇨병, 고혈압, 고령화 인구 증가로 신장 투석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만 총 투석 인구는 2024년 57만4400명에서 2035년 71만4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복막 투석 환자는 같은 기간 약 8만4000명에서 16만78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가정 치료 환자를 중심으로 약 120억 달러(약 17조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봤을 때 여기서 10%의 점유율만 가져와도 10억 달러(약 1조43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다.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진출 계획도 있나.

“물론이다. 진출은 당연히 고려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 기업들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석 인구가 거의 100만명에 이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가의 경우, ‘복막투석 우선’ 정책 도입이 가속화 되어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보고 있다.”

- 비반스의 최종 목표는 뭔가.

“비반스는 환자들을 위한 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신장 투석 관련 의료기기는 혁신에서 소외된 탓에, 전 세계 말기 신장 질환 환자들은 생존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비반스는 환자들에게 편안한 삶을 되찾아줌과 동시에, 국가의 의료 재정 부담을 함께 낮추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앞으로도 계속 이뤄나갈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비반스
‘비바컴포트’

메트로 한줄뉴스



▲민헌 김민재, 부상과 혹사 논란에도 스스로 채찍 “내가 더 잘했어야”
▲길어지는 부상…손흥민, 유로파 4강 1차전도 ‘아슬아슬’
/사진 뉴시스

▲안첼로티 감독, 레알마드리드 떠나 브라질 지휘봉 잡나
▲PSG 이강인, 이번엔 출전 기회 잡을까…아스널과 UCL 준결승 격돌

▲‘어깨 통증’ 글래스노우, 결국 IL행…올해도 규정 이닝 불투명
▲김혜성 경쟁자였던 파헤스, NL 이주의 선수 수 상…5경기 OPS 1.900